

# 2019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동체가 살아있는 작은도서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2019

작은도서관 이야기



2019  
작은도서관  
이야기

공동체가 살아있는 작은도서관

## Part 01 공립 작은도서관



### I. 지자체 직영 작은도서관

010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 : 서로 세우고 함께 키우다

### II. 위탁 운영 작은도서관

016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 어린이들의 꿈을 품은 그림책 마을

021 고맙습니다솔향기 작은도서관 : 인생은 60세부터, Bravo my life!



## Part 02 사립 작은도서관

### I. 아파트 작은도서관

028 웅달샘 작은도서관 : 3년 연속 전주시 최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032 꿈&휴 작은도서관 :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충전소

036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 : 책나무에서 열리는 독서문화 열매

042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 금산면을 책으로 물들인 금빛 물결

048 성성푸른도서관 : 마을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다

### II. 교회 작은도서관

054 곰세마리 작은도서관 : 가족과 함께하는 꿈터

### III. 마을공동체 운영 작은도서관

058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 도란도란 참새들의 방앗간

063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 사람도 사랑도 넘쳐나는 우리 동네 아지트

## Part 03 특화 작은도서관



070 길 작은도서관 : 마을 기록 특화

076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 : 노인 특화

081 책이랑 작은도서관 : 마을 기록 특화

087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 만화 특화

## Part 04 작은도서관의 숨은 지원군 이야기



094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봉사동아리 도서관 희망원정대

098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 봉사단

102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이야기

## Part 05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108 전국 작은도서관 동아리 자랑

118 작은도서관에서 찾은 인생책

120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소개





## 들어가는 말

일상생활 가까이 쉽고 편안하게 드나드는 문화 공간인 작은도서관은 전국에 7,000여 개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아도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문화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을 지닌 작은도서관은 사람, 환경, 지리, 문화 등 그 지역의 특색을 드러내며 문화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누리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견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공동 육아 나눔터이자 어르신이 편안히 노후를 함께 보내는 안식처로, 아이들의 책 놀이터이자 직장인의 책 쉼터로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이 넘쳐납니다.

‘2019년 작은도서관 이야기’는 현장에서 보고 들은 진솔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소개한 도서관 중 우수 운영사례와 특화 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독서동아리와 작은도서관에서 추천한 책도 일부 수록했습니다.

운영진들의 다양한 운영방식과 이용자들의 관심과 사랑이 고스란히 담긴 이 사례집이 지역에서 독서문화를 꽃피우고픈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2019 작은도서관 이모저모



**1월 팔판 작은도서관**

제10회 도서관이랑 친구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다.



**2월 안산다문화 작은도서관**

몸책플레이숍 공연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삼형제' 공연을 펼치고 있다.



**3월 무지개 작은도서관**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열두 띠에 대해 알아보기' 로 활기찬 새해를 열었다.



**4월 장유대우 작은도서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꽃계 메모지'를 만들어 아이들의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줬다.



**8월 범지기마을10단지 푸른 작은도서관**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재미있고 흥미로운 신간 도서를 들여놓았다.



**7월 꿈땅 작은도서관**

'도서관 여름 캠프'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청소년들의 모습이다.



**6월 다울책사랑방 작은도서관**

칼데콧 수상작과 세계 여러 나라 그림책 전시회를 가졌다.



**5월 주천면 작은도서관**

5월을 맞이해 서가를 재정비한 모습이다.



**9월 인후비전 작은도서관**

서가, 열람실, 어린이실을 원목가구로 리모델링해 친환경 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10월 건지산숲속 작은도서관**

가을을 맞아 지역주민들이 숲속에서 색다른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1월 푸른꿈 작은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동네 책 잔치' 홍보지를 발간했다.




**12월 힐숲 작은도서관**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흠뻑 빠졌다.



## Part 01 공립 작은도서관



### I. 지자체 직영 작은도서관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 : 서로 세우고 함께 키우다

### II. 위탁 운영 작은도서관

대조꿈나무 어린이도서관 : 어린이들의 꿈을 품은 그림책 마을  
고맙습니다 솔향기 작은도서관 : 인생은 60세부터, Bravo my life!

# 서로 세우고 함께 키우다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서울시 금천구 독산4동 주민센터 2층에 위치한 공립 작은도서관이다. 도서관 입구에서 새어 나오는 은은한 동요가 주민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이다. 한국 아동문학의 대가인 권정생 작가의 시가 노랫말이 된 곡으로 이곳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을 반가이 맞는다. 금천구 아이들의 꿈의 쉼터이자 언제나 열려있는 공간인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이하 꿈씨)을 만났다.



## 주민참여형 공간 + 영어 특화 작은도서관이 하나로

2012년 1월에 개관한 주민참여형 공간인 꿈씨는 얼마 전 새 옷을 갈아 입었다.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되고 모든 공간을 리모델링해 재개관한 것. 방과 후 시간의 대부분을 꿈씨에서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간식방을 마련하고 책소리방, 책이야기방도 새로 만들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운영진들은 '책이 있는 놀이터에서 놀자'를 가장 큰 모토로 삼는다. 친구들과 신나게 색칠공부도 하 되, 책은 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반드시 재방문해 책을 읽게 되고 관심있는 책을 빌려가곤 한다. 이처럼 아이들이 도서관 공간을 사랑하게 되고 이후 독서습관은 자연스럽게 묻어난다.

이곳은 애초 새마을문고 형태로 운영하다가 금천구 작은도서관의 모태 격인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에서 위탁 운영을 했다. 약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지자체 공립작은도서관으로서 지금의 형태를 갖게 됐다. '꿈씨'라는 명칭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모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선정됐다. 도서관에서 저마다 꿈의 씨앗을 찾아가자는 의미와 지역 주민들의 공동의 꿈씨를 만들어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10:00~20: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서울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동) 독산4동 주민센터 2층	공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cafe.daum.net/dschildlib">http://cafe.daum.net/dschildlib</a>



2019년 영어특화 작은도서관으로 재개관하면서 꿈씨는 영어 그림책 5,000여 권을 구비했다. 다양한 내용의 그림책은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수서는 양서와 그림책을 위주로 한다. 이 밖에도 도시 생활에 지친 아이들을 위해 자연과학 테마 도서를 수서해 과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줄 예정이다.

### 요일별 색다른 테마로 꾸며지는 프로그램

꿈씨는 아이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 연구하고, 고민의 결과를 프로그램에 적용시킨다. 그렇게 탄생한 ‘도서관에서 1박2일’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다. 친구들과 함께 간식을 먹고, 밤새도록 책을 읽는다. 책이 조금 지루해지면 보드게임을 하거나 자유 시간을 갖는다.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도서관을 더 이용하게 되고, 책과 가까워진다.

이외에도 꿈씨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은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꿈씨는 일주일동안 바쁘게 흘러간다. 월요일에는 수학과 친해지자와 어울렁더울렁 보드게임, 화요일에는 우뇌를 자



극하는 종이접기와 초등영어, 수요일에는 책으로 소통하는 책 소리와 힐링 스케치, 목요일에는 영어책을 함께 읽는 영 독서와 알파벳 팝업북, 금요일에는 책 소리, 토요일에는 조약돌 영어와 이야기 가득한 종이 등을 운영한다.

영어 특화 작은도서관답게 영어 관련 프로그램과 아이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돋보인다.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교육을 받고 스스로 동아리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도서관이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대부분 재능기부로 이뤄진다. 눈에 띄는 점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씨를 이용해온 아이들이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성장한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자원해왔다고 한다. 현재 이 아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0개가 넘는다. 도서관에서 꿈을 키운 아이들이 지금은 꿈씨에서 꿈을 펼치고 있다.

“언어들이 성어가 되면 자신이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회귀하는 언어 같아요. 어렸을 적 도서관을 이용했던 좋은 기억을 안고 직접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가져와요”

독서동아리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아리로 함께 그림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꿈씨맘이 있다. 회원들은 책을 읽으며 소소한 담소를 나눈다. 육아와 가사에만 전념했던 엄마들은 모든걸 잠시 내려놓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꿈씨는 여러 동아리실을 개방해 주민들의 모임 등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씨가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도서관은 책 읽는 곳이죠. 하지만 작은도서관은 구립도서관과 다르게 대출과 반납 통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마을공동체 관계망을 촘촘히 하는 것도 작은도서관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도서관에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이 있는 도서관에 오다 보면 분명히 책을 읽게 될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뜻이 같은 사람들과 마을 활동을 하게 되고 스스로가 어느새 주체가 되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책과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치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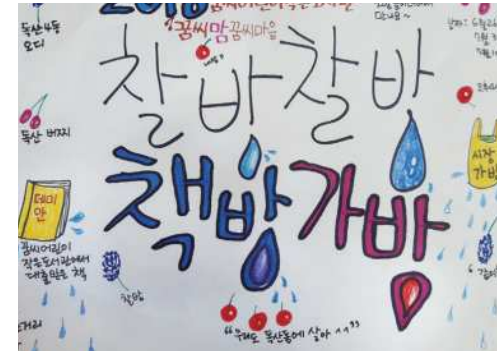
뚜렷해지죠. 이처럼 단면의 나에게서 입체적인 나를 만나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처럼 다양하고 풍성한 도서관 덕분에 독산동 일대의 독서율은 나날이 상승 중이다. 현재 등록된 1일 평균 이용자수는 100명에 달하며 꿈씨는 공립작은도서관의 좋은 예로 손꼽힌다.

### 꿈씨는 언제나 성장 중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은도서관의 인력 문제는 어디나 존재하듯 이곳 꿈씨 역시 녹록치 않다. 상근직 관장 한 명과 마을 사서들이 운영하는데 마을 사서는 구에서 자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서 교육 실시 후 각 작은도서관에 배치해 준 인력이다. 마을 사서들은 한 달에 10일간 4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다.

“여러 명의 자원활동가가 운영하다 보니 일을 나누기가 쉽지 않고, 어떤 큰 기획을 길게 이끌어가기도 어려워요. 반 상근직이라도 있다면 일을 더 많이 공유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금천구는 작은도서관협회가 구성되어 있다. 운영자들끼리 매달 만나서 회의를 한다. 중요 안건을 나누고 현재 상황을 공유해 서로 돕는다. 또한 구립도서관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재는 유혜숙 관장이 직접 발로 뛰고 있는데, 구립도서관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직접 방문해 사업을 공유받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같은 목표를 가진 기관들이 힘을 합쳐 운영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삶의 질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음 시작은 아이들이 쉽게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처음이 변치 않으면서도 조금씩 성장해나가는 공간이 됐으면 해요. 유치원 때부터 다니던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어 재능기부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다시 꿈씨에 오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 공간을 꿈꿔요.”

마을 사랑방으로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꿈씨어린이 작은도서관. 앞으로도 사람이 넘치는 공간, 정이 넘치는 공간으로 오랜 시간 함께하길 바라본다.



# 어린이들의 꿈을 품은 그림책 마을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

서울 은평구 대조동은 일명 베드타운(Bed Town)이라 불린다.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거기능 위주로만 지내는 지역을 일컫는다. 그러다 보니 대조동은 이렇다 할 문화시설이 없어 주민들이 문화 갈증을 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엄마들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시작한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이 주민들 앞에 선보였다. 대조초등학교 옆 공원에 자리 잡고 있어 아이들이 신나는 책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운영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8: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0길  
24-6(대조어린이도서관)

## 유형

공립 작은도서관  
<https://cafe.naver.com/djkkumnamulib>

## 그림책이 무궁무진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 초반은 도서관에 관심이 많은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시작했다. 쉽지 않은 운영을 이어나가던 중, 2017년 5월 1일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은평지회가 위탁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사서 자격증이 있는 전문 인력이 도서관을 맡은 덕분에 도서관의 질은 나날이 높아졌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의 기반을 새로이 다지기 시작했고, 운영 초반 기증받은 도서가 많아 출판사 위주로 분류됐던 도서들을 주제별로 재정비하는데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 3,000권의 도서를 폐기하고 공을 들여 장서를 점검했다.

이후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단체에서 운영하는 만큼 특색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수차례 회의 끝에 2018년 그림책 특화 도서관으로 공표했다. 새로 수서하는 그림책들은 모두 별치기호를 부여해 체계적인 관리를 시작했다. 먼 지역에서 그림책을 보기 위해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있을 만큼 그림책 특화 사업은 도서관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 캐치프레이즈: 어린이에게 질 좋은 독서 문화

어린 시절부터 책과 친구가 된 아이들은 커서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 운영진들은 밤낮으로 양질의 운영회의를 거듭한다. 수서는 새로운 신간 그림책, 밀리언셀러, 베스트셀러 등을 중심으로 책장을 채우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림책은 어린이만 보는 책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어른 그림책도 수서한다.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독서문화 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겨레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들’을 모토로 어린이 대상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중에도 그림책을 보고 다 함께 요리를 나눠 먹는 ‘남남 톡톡’은 운영이 가장 활발하다.

뽕망뽕망한 눈동자의 아이들이 테이블에 모여 앉아 채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은 후 간단한 요리를 해본다. 채소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며 채소와 가까워지는 시간이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금도 솔솔 뿌려서 한 입 쓱~! 평소 먹지 않던 음식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어느새 거부감이 사라진다. 친구와 함께 하며 책과 가까워지고 채소와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도서관 앞, 널찍한 마당은 또 하나의 자랑이다. 이곳에서는 신나는 일들이 새록새록 솟아난다. 동네 중심에 위치하니 도서관 행사가 있는 날이면 금세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곤 한다.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이면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옛날 전통놀이, 그림자 인형극도 펼친다.

청소년들이 그림책 이야기의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동화책 읽어주는 시간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온종일 책과 신나게 놀던 아이들은 해지는 저녁이 돼서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

“아이들이 책이 좋아졌대요! 책과 가까워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옹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부듯합니다.”

## 대조동 마을 속 작은 문화커뮤니티센터

이곳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다. 주민 밀착형 도서관답게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은 불이 꺼질 새가 없다. 그림책에 관심 있는 어른들이 함께 하는 그다방(그림책 다시 읽는 방법)은 같이 읽는 그림책의 묘미를 물씬 느낄 수 있다. 글자가 없는 그림책, 타이포그래피 그림책 등 주제를 정해 각자 책을 가져와서 함께 읽는다. 글자 책에 없는 따뜻한 그림과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의 모습은 색다른 독서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은평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서관이 많은 편에 속한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많아 활성화와 홍보를 위해 은평구 공공-작은도서관의 연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결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서 장비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한다.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응암도서관과 연계 중이다. 주민들의 독서문화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도서관 홍보 효과도 체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린이도서관연구회와 협동으로 공동육아사업을 운영한다. 이례적으로 북 스타트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등 여러 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로 주민들의 문화커뮤니티센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달려있어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도서관

도서관은 평일과 토요일에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하지만 학원을 마친 아이들은 오후 6시가 지나도 문을 두드린다. 하교 후 학원에 갔다가 곧장 도서관에 달려와 준 것 자체가 고마운 마음 뿐이다.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운영진들은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책을 보고 가도록 도서관 불을 밝혀준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고민이 많은 운영진들은 앞으로 희망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도 많다.

"아이들이 학원으로만 몰려서 아쉬워요.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해요. 학원이 아닌 도서관으로 올 수 있게 학부모와 아이들의 만족을 동시에 끌어낼 문화프로그램을 연구 중이에요.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문화프로그램과 책 교육 사이에서 많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위탁 운영 중이지만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바로 고정 인력의 불확실성이다. 여러 교육과 마을 행사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자원활동가들이 운영 시간을 틈틈이 메워주고 있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도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사람이 무엇보다 중요한 작은도서관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몫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사명감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건 쉽지 않다. 그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오랜 시간 함께할 사람을 찾기 위해 꾸준히 자원활동가 모집과 교육을 하고 있다. 그림책 특화도서관인 만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림책을 보는 그 날까지 열심히 달려 예정이다. 그림책 작가와 책 읽기, 성인 그림책 동아리 활성화 등 그림책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림책이 모든 이의 인생책이 되는 대조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앞날을 기대해본다.

## 인생은 60세부터, Bravo My Life!

고맙습니다 솔향기 작은도서관

노인 인구가 많은 구도심인 인천시 동구 송현동에는 각자 소박한 삶을 향유하며 사람 사는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으로 이용자들의 무한 사랑을 받는 '고맙습니다 솔향기작은도서관'이 있다. 도서관이 있어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쉼터를 찾았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09:30~17:3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인천 동구 송현1.2동 솔빛로13	공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www.indgcc.org/">http://www.indgcc.org/</a>

## 소박한 달동네에서 피어난 책 향기

의학 발달과 빠른 경제 성장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현대의 실버세대는 우리 사회의 과반을 차지하는 계층이다. 그런데도 이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의 욕구를 채워 줄 공간이나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목마름을 해소하듯 고맙습니다솔향기 작은도서관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지향하는 노인특화 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져 실버세대들이 여가를 보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송현동에서 노인복지 활동을 하는 동구노인문화센터가 어르신들의 문화 생활공간을 고민하고 있을 때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만나면서 도서관 조성됐다.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지원으로 문화센터 내 식당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책으로 채우고, 열람실로 꾸며 지금의 아늑한 모습을 완성했다.

송현동은 유난히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다. 소나무가 많은 지역 분위기에 맞춰 싱그러움과 은은한 책 향기가 함께 퍼져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솔향기’를 이름 붙였다.

실버세대 뿐 아니라 전 세대가 이용하며, 지역주민의 편안한 쉼터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은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단순한 책 열람 외에도 담소를 나누고 삶을 나누며 도서관을 통해 일상을 만들어간다.



##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이 넘쳐나는 쉼터

도서관 곳곳에는 큰 글자책과 돋보기, 안경들이 가득해 입구에서부터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어르신들은 오다가다 도서관에 들러 책을 읽고, 도서관에 온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도서관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솔향기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도서와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생활과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한다. 단순히 독서 공간만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며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독박육아에 지친 엄마들을 위해 책을 매개체로 하는 독서 치유 동아리인 ‘마음 여행’은 함께 책을 읽고 아이들의 독서지도 연구를 위한 공부모임이다. 이야기를 나누며 힐링하는 이 시간이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다.

운영진들은 도서관을 통해 진정한 문화가 창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자서전 쓰기’는 그런 바람으로 탄생해 글쓰고 책을 만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점점 높아졌다. 어르신들의 글쓰기 욕구에 힘입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에서 함께 글을 쓰며 ‘마중물 소리’라는 이름으로 동화책을 만들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은 어른들에게 큰 보람을 안겨줬다. 정겨운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제공하며, 세대와 세대를 잇는 동시에 지역 독서문화가 성장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

솔향기의 프로그램은 이외에도 다채롭다. 비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한글아 놀자, 정원 속 이야기, 책 속 과학 마술, 할머니 동화책, 경제 교실이 있다. 성인 대상의 엄마는 독서전문가, 캘리그래피, 부모교육도 있다. 주 이용층인 노인 대상의 그림책 놀이, 인천 역사문학, 아코디언 명함 만들기 등 양질의 프로그램들이 도서관을 풍성하게 한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하는 독서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매년 책읽는 가족을 선정하고 어린이집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9년 인천시 우수운영사례 작은도서관' 선정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작은도서관은 살아있다

솔향기는 동구노인문화센터 권지연 센터장이 총괄 관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관장직 1명과 센터 내 사회복지사 1명이 도서관 사업을 맡아 운영한다. 이외에 어르신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을 함께 꾸려나간다. 운영비와 인건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아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솔향기 운영진들은 유난히 송현동에 대한 애착이 깊어 새로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은 멈출 수 없다.



“소싯적 숨 가쁘게 바쁜 하루를 살았던 어르신들에게 어쩌면 책은 사치에 가까운 것이었죠. 그렇지만 분명히 배움에 욕구가 있으셨어요. 도서관이 생기고 어르신들이 책과 함께하는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을 볼 때 굉장한 보람을 느껴요.”

솔향기는 노인특화 작은도서관으로서 송현동의 도서관 문화를 계속해서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시청각 교재 등 다양한 매체를 제공해 친근한 책 문화 전파는 물론 클래식 음악이나 다양한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도서관 이용자들이 누구나 작가가 되어 나만의 책을 가질 수 있는 도서관을 꿈꾸는 운영진들. 주민들의 삶이 녹아든 도서관 이야기를 담은 책을 엮어낼 그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솔향기는 살아있는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도서관이 생동감 있고 에너지 넘치는 이미지였으면 좋겠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편하게 와서 책을 읽다 가고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이용자와 오랜 시간 함께하고 싶어요.”



## Part 02 사립 작은도서관



### I. 아파트 작은도서관

웅달샘 작은도서관 : 3년 연속 전주시 최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꿈&휴 작은도서관 :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충전소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 : 책나무에서 열리는 독서문화 열매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 금산면을 책으로 물들인 금빛 물결

성성푸른도서관 : 마을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다

### II. 교회 작은도서관

곰세마리 작은도서관 : 가족과 함께하는 꿈터

### III. 마을공동체 운영 작은도서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 도란도란 참새들의 방앗간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 사람도 사랑도 넘쳐나는 우리 동네 아지트



# 3년 연속 전주시 최우수 작은도서관 선정

옹달샘 작은도서관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는 마을을 사랑하는 주민들이 함께 만든 소중한 문화공간이 있다. 아파트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마을공동체를 꾸려가는 옹달샘 작은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 인후동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옹달샘 작은도서관을 만났다.



### 운영

평일 09:00~18:00  
토요일 10:00~16: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안덕원로 251(1029번지)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cafe.daum.net/ongdalsam1218>

## 주민들의 힘, 도서관 조성의 시작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운동에 이바지하고자 조성됐다.

2008년 처음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도서관 공간을 리모델링한 것이 도서관 조성의 출발점이었다. 설립 초반에는 주민들이 재정 문제를 앞세워 설립을 반대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운영진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준비위원회를 꾸려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하며 주민들을 설득했다.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은 적극적으로 서명 운동까지 진행하며 열성적으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알렸고 이같이 많은 사람의 노력이 모여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문을 열었다.

주민들의 열정으로 시작한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설립 초기부터 주민들이 발 벗고 나서 직접 사서를 채용해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운영을 해나갔다.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었다. 현재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재능기부로 주말 운영 또한 자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121㎡(36평)의 규모에 15,000여 권에 달하는 소장 자료를 갖춘 제법 큰 규모의 작은도서관이다. 현재 도서관 회원은 1,100명에 웃돌고 한 달 평균 이용자 수는 450명에 달할 정도로 아파트 주민들의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옹달샘을 이끄는 동아리와 프로그램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자랑거리는 단연 주민들의 독서·취미동아리다. 모두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15개의 동아리는 평균 5명의 회원이 있으며, 총 동아리 회원 수만 약 70명에 달한다.

일부 운영자가 이끌어가는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을 모토로 삼은 운

영진들은 재능이 있는 주민들을 모아 강좌와 동아리를 개설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직접 운영하는 각 동아리는 도서관을 이루는 든든한 축이다.

그중에 돋보이는 동아리는 코바늘뜨기 동호회인 ‘코바늘 세상’이다. 2018 마을공동체 사업에 선정되고 지원금까지 받은 웰메이드 동아리로 전주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프리마켓을 진행했을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보유한 회원들이 많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등 주민들과의 추억 만들기도 덩이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 매월 두 개 이상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모든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점은 또 하나의 자랑이다.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다. 상시 운영프로그램으로는 창의력을 자극하는 컬러 비즈 공예, 책과 친해지는 책 사이다를 매주 목요일 진행한다.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즐거운 영화 상영도 한다.

이 밖에 정기 프로그램은 그림책으로 예술을 배우는 스크린으로 만나는 그림책, 아이들에게 언제나 인기 만점인 출석왕 이벤트, 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도자기 체험이 있다. 매년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옹달샘 올림픽도 있다. 이렇듯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한 프로그램은 자기 계발은 물론 인생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주기도 한다.



## 마르지 않는 옹달샘을 꿈꾸며

주민들의 넘치는 사랑 덕분일까. 옹달샘 작은도서관은 빛나는 열매를 맺었다. 2016년 전국작은도서관대회에서 주민 스스로 운영 주체가 되어 전문 사서를 채용하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우수 사례로 뽑혀 최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수상 경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2018년까지 3년 연속 전주시 사립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최우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되고, 2018년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상도 받는 등 끊임없는 성장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변화가 필요하다. 2008년 도서관 설립 초반에 비해 도서관의 환경과 이용자의 특성 등 많은 것이 달라져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속 가능한 인력과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가장 큰 과제다. 운영진들이 도서관과 주민들에 대한 애정으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지만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비록 이런 여건일지라도 마르지 않는 옹달샘을 꿈꾸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쉼터로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옹달샘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의 바람처럼 독서문화가 넘실거리는 문화의 샘이 되길 소망해본다.

“작은도서관은 동네 사랑방이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쉼터입니다. 하교 후 친구들과 삼삼오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즐거워하는 아이들부터 동아리와 취미 활동으로 늘 열정적인 어르신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삶의 방식과 이야기가 스며있는 옹달샘 작은도서관의 운영진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충전소

꿈&휴 작은도서관

꿈&휴 작은도서관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자리한 아파트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입주민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운영되는 공간이다. 도서관 조성 전부터 예비입주자들이 작은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 조성한 문화쉼터이다.



운영	주소	유형
평일 10:00~20:00 주말 10:00~18:00 (법정 공휴일 휴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000, (여수동, 센트럴타운 3단지) 센트럴타운 커뮤니티센터내	사립 작은도서관

## 집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의 문화생활

꿈&휴 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 개관 이후 지자체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성남시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서 2015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단지 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놀이터와 도서관밖에 없다보니 놀이터에서 놀다 지친 아이들이 도서관으로 밀려오곤 한다. 특히 도서관은 아이들의 방과 후 시간이나 방학 시즌에는 언제나 북적이다. 꿈&휴 작은도서관은 매일 친구 집처럼 찾아오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을 자원봉사 수요처로 등록한 후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청소나 서가 정리 등 단순 활동 만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한층 더 질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청소년 선생님 한 명당 20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만큼 운영은 활발하다.

## 어린이를 배려한 '노란색 띠지 서가'

“사서 선생님~ 이순신 장군님 책 어딴어요? 찾아주세요~”  
“왼쪽 두 번째 서가 91번에서 찾아보렴~”

꿈&휴 작은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책을 알아서 척척 찾아 읽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청구기호가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 어떻게 책을 쉽사리 찾는 걸까?

서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청구기호 라벨지 위에 노란색 띠지가 눈에 띈다. 띠지에는 '유아'라는 글자와 번호가 적혀있다. 일명 노란색 띠지 서가는 아이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입한 꿈&휴 작은도서관만의 방법이다. 자원활동가들의 아이디어로 시작한 띠지 서가는 아이들이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 입주민들의 소통창구 '센북클럽'

이곳에는 어린이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다. 성인 대상 프로그램도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독서동아리는 '센북클럽'이다.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명 '센북'은 201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꿈&휴 작은도서관의 대표 독서 동아리다.

센북을 시작하고 회원들은 2015년부터 약 70권의 책을 함께 읽었다.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각색의 직업군의 회원들이 모여 월 2회, 목요일 저녁에 모여 독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모임은 자녀 동반도 가능하며, 맛있는 간식도 나눠 먹는다.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요즘은 이웃들과 정겹게 지내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꿈&휴 작은도서관에서는 이웃들과의 수다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한 일이다.

이 밖에도 프로그램은 늘 바쁘게 운영된다. 작가초청특강, 엄마표 그림책 읽기, 도란도란 낭독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등 입주민들의 문화 활동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장 자랑스러운 공간으로 남기 위해

최근 도서관에는 노년층 이용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이 큰 활자본의 도서를 찾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서할 계획도 하고 있다.

도서관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동력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성남시와 경기도의 지원이 많아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입주 초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높은 도서관 이해도로 실무 담당 유급 직원을 채용한 것도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됐다.

꿈&휴는 입주민들이 아파트라는 마을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으로 남고 싶다. 그런 내일을 위해 운영진들은 열심히 뛰고 있다. 도서관 견학, 장서 재고조사 등 바쁜 날의 연속이지만 언제나 마음만은 보람차다. 모든 입주민이 꿈&휴를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날까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길 기대해본다.



# 책나무에서 열리는 독서문화 열매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은 흥덕마을 1호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모여 조성했다. 초기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어색했는데 어느덧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텅 비어 있던 공간에서 책 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공간으로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은 오늘도 흥덕마을을 밝히고 있다.



## 운영

평일 10:30~18:00  
토요일 10:30~12:3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2로118  
번길 26. (영덕동, 흥덕마을9단지이  
던하우스아파트) 901동 외부1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booktree.winbook.kr/>

## 엄마들의 구슬땀이 거름이 되어

흥덕마을 내 두 번째로 입주한 주민들은 근처에 문화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15단지까지 구성된 단지 안에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없었던 때, 엄마들은 일단 아이들이 갈 곳이라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도서관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던 40평 남짓한 공간에서 도서관과는 살짝 어울리지 않는 빨간 합판의 책장 몇 개, 도서 1,000권, 누군가로부터 받은 중고 냉방기로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은 시작됐다. 자원활동가로 이뤄진 운영진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책장을 쓸고 닦고 밤새도록 책정비 작업을 했지만 도서관을 만드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전시회에서 도서관에 어울릴 만한 인공나무를 얻어오고, 자원활동가들이 직접 사비를 모아 물품을 기증하는 등 모두의 소망이 모인 도서관은 그렇게 점점 모양을 갖추었다.

“시멘트 바닥이었던 때는 혹시나 아이들에게 해가 될까봐 물걸레질을 참 열심히도 했어요. 수전 시설이 없어서 기어이 각자 집에 가서 물통에 물을 받아올 정도로 열성이었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에피소드네요.”

자원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은 문학 나눔의 우수도서관에 선정되는가 하면, 각종 뉴스 매체에도 소개되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부지런히 지원사업에도 공모해 시와 도의 각 지원금을 받아 이제는 시멘트 바닥이 아닌 열선 깔린 마룻바닥으로 아이들의 따뜻한 쉼터로 거듭났다.

흥덕마을 1호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용자들은 질 좋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중이다. 이 모든 것은 운영진들이 도서관 관련 큰 행사나 모범적인 작은도서관 등을 견학하며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수집한 덕택이다. 국제도서전, 도서관 탐방 등으로 아이디어를 얻어 올해는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방학 시즌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북적이는 만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매년 진행하는 ‘독서록 많이 쓰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독서록을 가장 많이 작성한 아이들에게 떡볶이 상품권을 제공한다. 아이들은 책도 읽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어 한없이 즐거워한다.

넵킨아트 동아리, 할머니와 함께하는 이야기 동아리, 리본 공예 동아리, 뜨개질 동아리 등 도서관 틀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한 동아리들도 도서관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다. 모임 공간을 항상 개방해 새로운 동아리들이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다.



도서관이 있어 부모들도 언제나 안심이다. 방학 시즌이나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채워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학원에 지치고 스마트폰에 빠진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그야말로 오아시스인 셈이다.

“엄마 품에 안겨 오던 아이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본인이 직접 페이스페인팅 재능기부를 하겠다며 모든 준비를 해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대견하고 예쁘던지, 마치 우리 마을이 아이 하나를 이만큼 키워구나하고 보람을 느꼈어요.”

### 운영 노하우가 돋보이는 자원활동가들의 팀플레이

흥덕마을 단지 내 도서관은 총 8개가 있고, 중심상가에는 전문 어린이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도서관이 늘어가는 와중에 공공도서관인 흥덕도서관마저 설립이 확정됐다. 큰 공공도서관이 생기는 것은 주민들에게 좋은 일이지만, 작은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줄어듦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운영진들은 한 번이라도 더 오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수없이 회의를 반복하면서 영어특화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평소에도 이용자들이 양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근 큰 회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재정비를 해보자는 결론이 나왔다.

운영진들은 다시 한번 구슬땀을 흘리며 영어 도서를 확충하고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영어 전집을 마련하고, 분야별 영어 CD를 구비 하는 등 영어특화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을 찾아갔다.

주민들은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일명 영어책 많은 도서관으로 소문나서 이용자의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2009년에 개관해 올해 10년 차를 접어든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은 자원활동가로 운영한다. 초창기에는 개관 멤버가 20명이 넘었지만, 현재 실무 담당 활동가는 약 13명이다. 급할 때

는 예전 활동가들에게 연락하면 도와주기도 하지만 현재는 13명이 고정인원이다. 많아 보이지만 다들 시간이 날 때 도와주는 방식이라 늘 일손이 부족하다.

운영 초창기에는 자녀들도 뒤로한 채 운영에 매달렸다. 몇 년간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 권태기도 찾아왔다. 도서관 운영에 좀 더 적극적인 사람에게 더 많은 업무가 배정되는 등 업무 형태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활동가들은 오랜 운영 그리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급기야 팀플레이 운영 방식을 도입했다. 자원활동가를 3~4명씩 팀으로 나눠 업무를 배분해 겨울방학 프로그램 1팀, 지원금 사업은 2팀 등으로 여러 개의 조직으로 운영했다. 위기를 팀플레이라는 탄력적인 운영으로 극복하고 다시 한번 성장했다. 그럼에도 부족한 인력 때문에 도서관에 방문하는 엄마들에게 의미있는 봉사활동을 해보라며 늘 권유하지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모든 작은도서관이 그렇듯 인력의 불안정한 점은 있지만, 운영진들은 함께할 좋은 사람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

## 가치들이 모여 큰 책 나무를 이룰 때까지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작은도서관연합회가 설립됐다. 5단지 호반 두드림, 6단지 자연&Book, 7단지 현대 호롱 마루, 8단지 아델리움 글마루, 9단지 이던 책나무, 10단지 꿈꾸는, 11단지 경남 초록, 영유아 전문 더 빛 아크 키즈까지 운영진들은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흥덕마을 작은도서관연합회는 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 등에도 참여하며 소정의 지원금을 받아 운영에 소소한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던 중 작은도서관만을 위한 행사를 기획해보자는 각 도서관 관장들의 의견으로 '흥덕마을 책 잔치'가 8년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책 잔치는 '십진 분류표와 놀아요!'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던책나무는 300 사회과학, 700 언어를 맡아 '다른 언어로 된 그림책'을 전시했다. 영어나 일본어 등 주변에서 잘 찾을 수 있는 언어로 된 책이 아닌 색다른 언어로 된 책을 전시해 도서관으로서도 색다른 경험이었다.

“거창한 연합회보다는 운영진들의 작은도서관 모임 정도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연합회에서 운영진들도 서로 정보를 나누며 자문할 수 있어서 좋고 이용자들도 조금 더 풍성한 독서문화를

즐길 수 있으니 참 좋아요.”

어느새 다른 도서관에서 견학 오는 등 모범 사례가 된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 김수영 관장은 작은도서관을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관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10년간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의욕이 앞서서 많은 일을 하려 하기보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조절이 중요한 거 같아요. 동네는 전입 전출로 사람들이 계속 바뀌기 마련이고 봉사자들도 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데 새로 오는 봉사자들이 전처럼 적극적이지 않다고 해서 섭섭할 필요도 없고 서로 즐겁게 함께 하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관장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커다란 아파트 단지 안에서 10년 동안 자리를 지킨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 주민들의 수많은 감사 인사가 스쳐 지나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도서관으로 인해 마을에 활기가 넘쳐요”라는 말이다.

단지 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이 많아 늦은 저녁이 돼서야 아파트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아이들마저도 학교 후 학원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 흔한 놀이터마저도 텅텅 비어있었다. 그런데 도서관이 생기면서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고 모임을 만들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화색 단지 같은 곳에 도서관이 생겨 어느새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문화공간으로 변신한 것이다. 김수영 관장은 이던책나무 작은도서관이 주민들 곁을 오랜 시간 지키길 소망한다.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을 모토로, 큰 프로그램을 화려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소박하면서도 편안하게 쉬고 가는 도서관이 되고 싶어요. 딱딱한 느낌이 아닌 편안한 마을 도서관으로 오랜 시간 주민들 곁에 남고 싶어요.”



# 금산면을 책으로 물들인 금빛 물결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에 위치한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질 좋은 문화생활을 책임지며 책과 함께 하는 일상을 꿈꾸는 독서공간이다. 진주시에서 최우수 작은도서관으로 매년 선정되는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오늘도 지역에서 독서인구 늘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18:00  
주말 10:00~18:00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123 흥  
한물든빌 관리동2층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일상 속의 특별함이 있는 곳

진주시에 속해있어도 거리가 멀어 도심과 소외된 지역인 금산면은 문화시설을 찾아보기가 힘든 동네다. 시립도서관을 방문하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금산면 주민들에게는 작은도서관의 건립이 누구보다 절실했다. 현재 금산면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총 3곳으로 그 중 금빛마을 작은도서관만 독서문화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명실상부 금산면의 '작은도서관 교과서'로 불린다.

금산면은 농어촌 가족과 공군교육사령부가 있어 군 가족이 많다. 거기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주 이용자다. 작은 면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지만, 문화시설의 부재로 주민들의 문화 갈증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아파트 대표 회의에서 주민들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줬고 2008년 국립중앙도서관 지정 금산면 작은도서관으로 정식 개관했다.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진주시 작은도서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면적 약 100평에 장서 2만여 권, 프로그램실과 유아방 등 공공도서관 부럽지 않은 대규모의 자료들을 갖추고 있다. 어린이 이용자들을 위해 학년별 권장 도서를 비치하고 있어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방학 숙제를 위해 우르르 도서관에 몰려오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의 대표적인 독서 장려 사업인 '경남 독서 한마당' 선정 도서도 구비해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의 독서 활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도서관은 정적이고 조용한 곳이라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 도서관 안에 휴게실을 따로 마련했다. 간식과 음료수, 커피 등을 구비해둔 휴게실에는 아이들이 학원에 가기 전 잠깐 들러 책도 읽고, 어른들은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개관 이후 어린이에게는 친구들과 모여 앉아 즐겁게 책을 읽는 놀이터 같은 공간으로, 어른들에게는 책을 매개로 이웃들과 소통하는 사랑방으로 독서문화 공간을 쉼쉼 키워내고 있는 금빛마을 작은도서관. 입주민들에게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 쉼터로 12년간 함께하고 있다.

### 독서공간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항상 열려있는 곳이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평일부터 주말까지 문을 열어 주민들은 저녁 늦은 시간이나 시간이 비는 주말에도 도서관을 이용한다.

도서관은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금산면 전체 주민들도 이용가능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에 적극적이다. 도서관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50여 명을 훌쩍 넘기며 아파트 내 만남의 장으로 주민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다.



365일 꺼지지 않는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신선하고 즐거운 아이디어가 넘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매년 약 1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종류와 형태도 다양하다. 프로그램은 크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데 오전에는 주로 성인 대상 프로그램으로 우쿨렐레, 하모니카, 오카리나, 캘리그래피, 부모교육, 기타 교실, 손뜨개, 중국어, 생활영어 교실 등이 있다. 오후에는 어린이 대상 방과 후 교실로 한자교실, 생명과학, 책 놀이터, 동화랑 놀이랑, 요리 교실, 책 읽어주기, 영어 동화책 읽어주기, 신나는 도서관 등을 운영한다.

1년에 두 번, 방학 기간에 열리는 북 콘서트는 금산면 잔칫날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주민이 참여한다. 엄마들과 아이들은 시 낭송, 빛 그림 상영, 악기연주, 도서관에서 보물찾기 등으로 친목의 시간을 갖는다. 즉석에서 독서퀴즈를 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책을 읽기도 한다. 금산면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북 콘서트는 그야말로 아이들과 어른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다.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들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책을 읽고 편지도 쓰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1박 2일 독서캠프는 아이들에게 독서는 어려운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소중한 기회다. 함께 책을 읽고 인내심과 협동을 기르는 게임의 시간은 도서관이 친구들과 편안하고 즐겁게 책을 읽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준다.

아이들이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에서 방학을 보내는 특별한 방법은 또 있다.



바로 청소년 마인드 캠프이다. 방학 기간에 매주 1회씩 진행되는 인성 캠프인 청소년 마인드 캠프는 처음에는 참여도가 낮아 운영진들이 골머리를 앓곤 했지만, 지금은 진주시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정도로 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다. 진로, 꿈, 친구, 부모 등에 관해 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다.

엄마들의 동아리 ‘그림책 만드는 엄마들’은 그림책을 두 권이나 출간한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의 대표 동아리다. 글과 그림책을 좋아하는 엄마들은 함께 책을 읽다가 ‘내 아이가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진주 8경 중 하나이며,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인 월아산과 금호지 전설을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기 위해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를 만들었다.

“엄마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책을 만드는 일은 삶의 활력소가 됐어요. 회원들과 직접 그리고 쓴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깊은 감동을 얻었지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특별한 책은 스스로에 대한 성장도 가져다주었어요.”

정성으로 엮은 《금호지가 생겨난 이야기 푸르미르》는 지역의 역사와 애향심을 심어주는 책으로 진주시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책 판매대금 중 일부는 도서관입비로 기부해 도서관에 작지 않은 도움을 주기도 했다.

작가로 거듭난 엄마들은 2019년 또 한 권을 출간했다. 진주시의 지원으로 출간한 《채기 날다》는 책을 함부로 다루는 아이들에게 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 책의 입장에서 쓴 책이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두 번째 발간한 책의 판매대금도 도서관과 보육원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진주시 작은도서관협의회 회원이자 모범 작은도서관 사례로써 신생 작은도서관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작은도서관에 꼭 필요한 대출프로그램 교육과 도서관 전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며 진주시 전체의 작은도서관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주민들에게 큰 호평을 얻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다. 도서관을 책 읽는 공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모두가 어울리며 삶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운영진들. 그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오늘도 금빛 책 물결이 넘실거린다.

###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 놀이터로

어느새 12년간 문을 열고 있는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들의 든든한 책 놀이터가 되어 금산면의 명소로 거듭났다. 현재 전문 사서가 근무 중이지만 자원봉사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외에 12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서관 운영에 열정을 쏟고 있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독서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운영진에게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도서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어린이 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있었던 일이에요. 어린이들이 때로는 ‘선생님처럼 사서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뭉클해요.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또 다른 꿈을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에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위대함을 느끼죠.”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의 일상 속 꼭 존재해야 하는 문화시설이라고 말하는 운영진들. 그들의 노력 덕분에 금빛마을 작은도서관은 긴 세월 동안 주민들의 걸을 지키며 독서문화를 전파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할 도서관의 앞날을 응원하며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건 마을의 작은도서관이었다’고 말한 빌 게이츠와 같은 인물이 탄생하기를 바래본다.



# 마을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다

성성푸른도서관

천안시에서 교육지구로 손꼽히는 성성지구에는 입주민들이 함께 일궈나가는 문화 공간, 성성푸른도서관이 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성성동 성성레이크타운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입주민들의 사랑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 운영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4: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 (성성동, 천안레이크타운푸르  
지오) Uz center 내 성성푸른도서관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s://www.instagram.com/sungseongpureun/>



## 책과 사람이 만나는 도서관을 만든다

성성푸른도서관은 입주민들의 큰 관심에 힘입어 주택건설기준 근거로 만들어졌다. 아파트 입주민의 70% 이상이 영유아와 저학년 아동을 둔 부모 세대로 육아와 직장생활로 멀리 있는 공공·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등 어려웠던 차에 내 집 가까이 도서관이 들어선만큼 부모들은 도서관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부터 아이를 둔 부모들이 건설사에 논의해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문을 열었다.

2018년 2월 개관한 성성푸른도서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지로 2급 정사서를 고용해 체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매월 신간 도서와 도서관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입주민들과 함께 한다.

성성푸른도서관의 박민주 관장은 아파트 작은도서관 운영 경험과 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정사서로 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맡고 있다. 이에 더해 함께 일하는 활동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도서관이 갖는 사회서비스 기능의 역할에 보탬이 되고 있다.

“처음에는 이곳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가능할까 생각했지만 주민들이 모여 도서관이 서서히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운영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되면서 도서관과 함께 주민들도 변화하고 성장한 것을 느끼거든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일찌감치 정착시킨 성성푸른도서관은 책과 사람이 만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성지구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견인하고 있다.

## 집 앞에서 만나는 맞춤형 문화생활

“엘사 사장님~”

“그래~ 어떤 책이 보고 싶니?”

도서관 데스크 앞은 언제나 아이들로 북적북적하다. 관장이란 직함이 낯선 아이들은 이상인 겨울 왕국의 ‘엘사’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직함 중 가장 높은 사람일 것 같은 ‘사장님’을 합해 ‘엘사 사장님’이라는 사랑스러운 호칭을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운영진들은 환한 미소로 반겨준다.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같은 동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도서관에서 자신과 같은 또래 친구들을 만나고 동생과 형, 오빠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볼 때 작은도서관이 정말 중요한 공간이라는 걸 새삼 또 깨달아요.”

도서관이 개관하고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운영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작가와의 만남, 영유아 북스타트 부모교육,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해 단순한 문화프로그램이 아닌 이웃들이 만나 사는 이야기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배울 거리도 제공한다. 그림책 공부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낭독으로까지 발전한 성성푸른도서관의 1호 독서 모임인 더불어 숲, 프랑스자수 동아리 수노리, 엄마들이 모여 체스를 배우는 체스 퀸,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그림책 읽기 모임인 아름다운 생각, 2주에 한 번 화요일 밤 8시 어른들의 독서 모임인 심야 책방, 손뜨개와 마크라메를 만들어 전시회를 진행할 정도로 실력자들이 모인 장수 동아리 함뜨, 화선지에 아름다운 글씨를 수놓는 캘리그래피 동아리 멋

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뿐만 아니라 그림동아리인 푸른 스케치북도 활발하다. 미술을 전공한 주민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회원 중 전공자가 많아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어낸다. 각자의 그림으로 그림책을 만들 정도로 회원들의 열정은 가득하다.

푸른 스케치북 동아리 회원들은 도서관에도 멋진 그림을 선물해줬다. 도서관 유리창을 수놓은 책들은 모두 회원들의 작품!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도 그려 넣으니 질 높은 셀프 인테리어가 탄생했다. 앞으로 2020년 달력 제작과 여러 권의 그림책 출간을 앞둔 푸른 스케치북 동아리의 미래를 기대해볼 만하다.



동아리들은 강사 없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관련 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해 실제 재능 있는 회원들은 강사비 지원사업에 추천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동아리가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는 역량을 얻고 있다.

주민들이 동아리나 프로그램에 참여해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 이웃들과 함께 만든 뜻깊은 결과물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뿌듯해하는 이들을 보며 운영진들은 도서관 운영의 힘을 얻는다. 도서관을 이용하며 주민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눈에 보인다는 운영진들은 작은도서관의 힘에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한다.

“하루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한 달에는 8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주민이 도서관을 사랑해주세요. 매일 만나는 이용자들이 도서관 밖에서도 반갑게 인사해줄 때 늘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사업에 선정되어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서관의 주 이용층인 아이들에게는 독서통장을 운영해 성취감을 선물하고, 시의성과 트렌드를 고려한 도서 전시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작은도서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도서관 이용자 교육은 많은 주민에게 호평을 얻었다. 언제든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지식정보의 보고로서 도서관을 100% 이용하는 방법을 전달했다. 청구기호의 구성부터 효과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좋은 책 찾는 노하우까지 작은 도서관에서 알차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법들을 이용자와 함께 나눴다.

이러한 성성푸른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방과 후 시간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냈던 아이들은 모여앉아 책을 읽고, 어른들은 단순한 친목 도모에서 책과 함께하는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됐다. 이렇듯 성성푸른도서관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 푸른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공간으로

2017년에 개관해 2년 만에 주민들의 문화사랑방으로 자리 잡은 성성푸른도서관. 다양하고 내실화한 프로그램으로 인근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방문해 운영시스템을 배워가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에서 충청남도 전체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빠르게 자리 잡아 이용자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현재 도서관 공간이 협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아 서가를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용히 책을 읽고자 하는 이용자에게는 아이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가를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외에도 추후 리모델링으로 공간을 확보해 다양한 이용자를 맞이할 예정이다.

성성푸른도서관은 지금에 멈추지 않고 더 큰 독서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천안시의 작은도서관을 위해 천안·아산 지역의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소장, 작은도서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 또한 2020년에 열릴 작은도서관 정책 토론회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목소리를 힘껏 낼 예정이다.

앞으로도 성성지구의 독서문화 생활을 이끄는 공간으로 이용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성성푸른도서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다정한 공간이자 아이들이 푸른 꿈을 키우고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다음 세대들을 만들어낼 성성푸른도서관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 가족과 함께하는 꿈터

곰세마리 작은도서관

2006년 개관해 하루에 30~40명이 방문하는 곰세마리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꿈터이자 쉼터이다. 서울에 위치하면서 주민들의 든든한 책 친구 역할을 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 운영

화, 수, 목, 금 10:00~18:00  
주말 10:00~15:00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54,  
(삼선동3가) 본교회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bear.egentouch.com>

## 책에서툰 아이들을 위한 '소리 내어 책 읽기 독서법'

곰세마리 작은도서관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아이들은 도서관에 오자마자 자연스럽게 책을 고른 후 자리에 앉아 소리 내며 읽는다. 그래도 눈치 주는 사람은 없다. 이곳은 아이들의 공간이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도록 도와주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운영진은 아이들이 책을 직접 고르게 하는 것도 선택과 책임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제가 골라준 책보다 자신이 고른 책은 끝까지 읽어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처럼요.”

소리 내어 책 읽기가 끝난 아이들은 독서 공책에 그날 읽은 책을 기록한다. 초등학교때부터 기록해온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어 자기 생각과 느낌이 담긴 재산이라고 말한다. 이 활동까지 끝나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보드게임 시간이다. 물론 이곳에선 조용히 게임을 할 필요는 없다. 게임도 하고 좋아하는 간식도 함께 나눠 먹으며 방과 후 시간을 알차게 보낸 뒤 집으로 돌아간다.

## 책으로 사는 '삶'

김은경 사서는 10년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보다 보람찼던 기억이 더 많다고 한다. 도서관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면서 자신도 발전해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인 사서여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다.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운영을 도와 주지만, 마음 놓고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 2018년에는 성북구에서 지원하는 순회 사서 사업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마저도 중지된 상태다.

1인 사서의 한계로 당장의 운영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다. 작은도서관 사서들은 일반 구립도서관 사서들보다 교육 기회가 적어 뒤처지는 한계를 갖고 있다. 나름의 방법으로 근무하는 데스크 뒤쪽 전공 서적 서가를 만들어놓기도 했다. 공간 구성부터 수서까지 혼자 운영해가면서 누군가에게 물

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틈틈이 서가에 전공 서적과 여러 참고 도서들을 보며 끊임없이 공부한다.

아이들이 주 이용층인 도서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아이들이 온다. 다문화, 조손 가정 아이들 등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양서와 그림책을 수서한다. 수서는 신간 그림책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화 위주이다. 가끔은 아이들과 서점에 방문해 책을 고르기도 한다. 자신이 고른 책이 도서관에 있고 다른 친구가 읽게 되는 것도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경험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그림책만 있는 건 아니다. 곰세마리 작은도서관의 모토는 ‘모두가 책으로 가는 삶’이다. 주민들의 삶에 책이 한 부분이라도 차지하게끔 돕는 게 운영진의 바람이다. 일반 도서 수서에는 주민들의 관심사나 시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얼마 전에는 엄마들의 독서회에서 고전문학 전집 수서를 희망해 이를 수용했다.

작은도서관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다. 성북구는 작은도서관 사서들이 ‘행복한 작은도서관 모임’을 운영하며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올해는 2017~2019년 출간된 아동책 목록을 만들어서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을 큰 틀로 잡았다. 6월까지 목록을 만들고 그 이후로 책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처럼 소통하며 운영하니 프로그램 질도 높아지고 운영이 훨씬 수월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서울 자치구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동안 도서 목록을 수기로 작성하는 등 열악한 방법으로 관리했지만 2018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운영자와 이용자들도 어디서든 도서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곰세마리가 가고 싶은 ‘길’

아이들의 곁에서 꿈을 심어주고 길러주며 독서문화를 만들어가는 곰세마리 작은도서관. 김은경 사서가 생각하는 10년 후 도서관 모습과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먼저 많은 특화 도서관이 개관하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금 당장 거리를 둘러봐도 발달 장애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사회 시선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특정 계층이 아니면 모두 비싼 비용을 내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도서관은 소외되는 계층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발달 장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6개월 정도만 독서 수업을 진행해도 아이들은 눈에 띄게 변해요.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한글부터 가르치고 책을 읽혔더니 지금은 일반 중학교에 진학해 학급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책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책은 느리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런 아이들을 위해 도서관을 만들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이자 가야할 길이다. 그는 작은도서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요즘 도서관의 공공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작은도서관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탓인지 도서관 고유의 기능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을 개관하고, 질 낮은 장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이 때문에 도서관이 주민과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서관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들의 마을공동체로 빛날 수 있다. 이 같은 그의 신념의 가치가 울림이 되어 전국에 많이 확산되길 바라본다.



## 도란도란 참새들의 방앗간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으로 향하는 담벼락에 아기자기한 벽화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도서관 가는 길이 즐겁고 설렘을 갖게 한다. 이 아기자기한 벽화를 지나 정겨운 골목길을 걷다 보면 금천구 시흥동의 사랑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운영	주소	유형
화, 수, 목, 금 10:00~18:00 주말 13:00~18:00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43-8, (시흥동)	사립 작은도서관 <a href="http://cafe.daum.net/eunhaengchildlib">http://cafe.daum.net/eunhaengchildlib</a>

### 친구네 집처럼 편안한 공간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니 도서관을 직접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과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있다. 마치 친구처럼 편안하게 맞이해주는 이곳에서는 아이들의 꿈이 무럭무럭 자랄 것만 같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모임인 금천 동화읽는어른모임인 함박웃음에서 시작됐다. 그림책을 함께 읽으면서 동네 도서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면서 아이들을 책으로 잘 키워보자고 시작한 이 모임은 2002년 안정적 독서환경과 소외 계층에게 도서 정보와 문화 향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시흥5동 은행나무 근처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했다.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102㎡(31평)의 규모에 11,000여 권에 달하는 소장 자료를 갖춘 제법 큰 규모의 작은도서관이다. 현재 은행나무는 지역회원이 900 가구를 넘어섰다. 주 6일 동안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고 하루에 평균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은행나무에서 일과를 보낸다.

2002년 도서관 운영 초기에는 회원들끼리 자급자족으로 운영해나갔다. 그러던 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재건축 문제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운영위원회는 직접 가방을 만들어 전국 동화읽는모임에 판매하고 동네에서 바자회를 열어 자금을 마련하는 등 여러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현재 은행나무가 있는 금천구 시흥동은 금천구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사비로 도서관을 세웠다고 한다. 운영진들은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해준 데 대해 그에게 감사함을 갖고 있다.

현재 조성한 공간은 주택을 개조한 것이다. 일반 주택을 개조했기에 기존의 방은 모두 자료실로

변모했다. 그림책방, 청소년방, 성인방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덕에 도서관이 아닌 편안한 내 집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인력은 상근직 한 명과 금천구 지원의 마을 사서 두 명,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에 버거운 인원이지만 운영진들은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유지해온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있다.

도서관 한 켠에는 후원자들의 이야기를 엮어놓은 책장이 있다. 후원자들이야말로 지금의 도서관을 지탱해준 원동력이다. 각양각색의 사연으로 후원해준 사람들은 이곳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감사함을 표현하고자 ‘후원자 이야기’ 서가를 별도로 만들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긴 이 서가는 도서관을 향한 후원자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다.

## 체계적 운영방식의 결실

은행나무가 오랜 시간 동안 주민들 곁에 있는 이유는 체계적이면서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운영방식 덕분이다. 운영은 수서부, 교육부, 편집부 등 부서별로 나뉘어 업무를 진행한다. 2018년에는 장서개발부를 신설해 질 높은 장서 마련에 힘쓰고 있다. 부서별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장서개발부는 올해 사업으로 주제전시를 기획했다. 유명한 작가가 아닌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을 선정해 ‘책장을 나온 작가’를 주제로 수서하고 전시한다.

2년마다 새로운 관장을 맞이하는 ‘관장직 선출제’도 눈여겨볼 만하다. 모든 회원이 한 번씩 관장직을 지낸다. 정식 관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한 조직, 오래 유지하는 조직을 만들고 자신도 성장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 듯 회원들이 관장을 맡아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도서관의 질이 한층 높아지는 이유 때문이다.

## 도서관은 우리 동네 방앗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런 방앗간 같은 공간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 참새라 불러요.”

운영진들은 도서관의 참새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쪽매 공방이다. 평범한 도서관 이용자였던 안경애님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맡아 아이들에게 쪽매 선생님이로 통한다. 쪽매공방은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력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정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한다. 책 읽어주기 활동은 독산초등학교, 가산 정보도서관, 별 바라기, 나누리 지역아동센터, 시흥비전스쿨 등에서 진행한다. 이 모든 활동과 사업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뤄진다.

편집부가 분기별 발행하는 은행나무 이야기에는 도서관에서 보내는 참새들의 일상이 가득 담겨 있다. 도서관의 역사를 기록하는 소식지는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과 프로그램 일정 등이 실린다.



### 시흥동을 넘어 작은도서관의 모델이 되다

이런 노력의 결실일까.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은 시흥동의 사랑방을 넘어 금천구 작은도서관의 모범 사례로 손꼽힌다. 2007년 자원봉사캠프 화합상, 2007년 청소년 푸른 성장대상, 2008년 제 13회 여성 주간기념 표창패, 2010 금천구민상 등 수많은 노력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도서관의 2년을 이끌어갈 양기순 관장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의 10년 후를 이렇게 내다봤다.

“저는 10년 후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을 것 같아요. 운영진들은 책 읽는 할머니가 꿈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해요. (웃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문화를 만들어내고, 소외 계층을 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 집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여 살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은행나무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 사람도 사랑도 넘쳐나는 우리 동네 아지트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는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다. 경기도 역곡동에 위치한 뜰안에작은나무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명 ‘뜰작’이라고 불린다. 부천시는 다른 지역보다 작은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지역으로 약 100개의 작은도서관이 있다. 그 중 뜰작은 부천시 89호 작은도서관으로 다양한 모임의 아지트와 아이들의 쉼터로 자리 잡은 뜰작을 만나보자.



#### 운영

화, 수, 목, 금 09:00~18:00  
토 10:00~15:00  
(월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지봉로 122-1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www.facebook.com/smalltreebook>



## 역곡동의 1호 도서관

부천시에 도서관이 여기저기 생겨날 때, 역곡동에는 도서관 조성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그때 뜰작의 등장은 주위에 도서관이 없어 문화생활에 갈증을 느끼던 주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도서관 입구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눈에 띈다. 후원금 저금통부터 아기자기한 장식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 이 공간은 역곡동 주민들의 쉼터이다. 작은나무교회에서 시작된 뜰작은 얼마 전 교회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지역사회 운영 주체로 전환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뜰작 운영 협의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뜰작은 운영 협의회가 생기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지역 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고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도 주고받으며 도서관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이용자분들이 그래요. 역곡동은 뜰작이 있기 전과 후로 나뉘다고. 너무나 감사한 말입니다. 운영의 원동력이 되거든요.”

## 도서관을 도서관에 가두면 안 된다

교육적인 활동에 관심이 많았던 나유진 관장은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자는 목표로 도서관을 조성했다. 처음 조성 당시 모든 걸 혼자 일궈나갔다. 공간 조성부터 수서까지 나 관장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은 도서관을 도서관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도서관으로서의 기본 목적은 그대로 둔 채 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맞춰 어떤 공간이든 도서관이 변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나 관장의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한 공간이 바로 지하 마을 문화공간이다. 마을 사람들과 책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고 싶은 운영진의 생각이 실현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쾌적하고 넓은 내부와 많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소소한 티타임까지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 역곡동 사람들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며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있다.

마을 공간에서는 다양한 모임과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줌바 밴드, 그림책 모임 해움, 회복적 생활교육, 뜰작500원 극장, 뜰작마을미디어 등 여러 모습으로 마을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의 지역 모임도 진행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부천 역곡 모임, 정치하는 엄마들 부천 모임 등이 뜰작에서 함께하고 있다. 모임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운영진은 부딪힘을 느낀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외롭기도 하고 자유롭지 못했어요. 뜰작에 오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입니다.” 모임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엄마가 전하는 이 도서관에 대한 소회다.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날이 풍성해지고 있다. 도서관 안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령대별로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3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초대 작가와 함께한 문화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사업은 12월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용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해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하다

도서관이 마을 안에서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운영진은 말한다. 그렇다면 역곡 마을 안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다. 이들은 도서관에 존재조차 모르고 있어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마음껏 책도 보고 프로그램을 즐기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모색 끝에 찾은 대안은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사회복지사들과 직접 논의하며 발로 뛰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끌었다.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 사업도 진행했다. 십시일반 모아서 도서관의 수익금으로 장학금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일시 정지 상태다.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된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해 돌착을 이용하게 된 아이들은 도서관을 알지 못해 방문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지금은 이 아이들이 돌착을 가장 사랑하고 많이 찾는다.

## 돌착이 나아가는 다섯 가지 길

쉴 틈 없이 도서관을 운영해온 7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앞으로의 돌착을 위해 보완해야 할 점이 아직 남아있다. 바로 어느 작은도서관에서나 고민인 예산과 인력 문제이다. 운영 초창기에는 1인 사서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을 오히려 더 빠르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운영하는 사업이나 업무가 늘어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현재 돌착은 상근직 관장 1명뿐이다. 관장이 자리를 비울 때는 주민들이 시간을 메꿔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나 실버 사서 사업이 있을 때는 운영이 수월하지만, 사업이 없는 겨울방학이나 연말 초는 운영이 힘든 게 사실이다.

예산 확보도 아쉬운 실정이다. 예산이 많다고 좋은 도서관은 아니지만, 운영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현재는 주민들의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지하 1층 공간은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관비를 받고 있다. 적은 금액이지만 이용자들도 후원의 의미로 대관비

를 기꺼이 내고 있다. 하지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비록 운영에 있어 현실의 무게는 버겁지만 주민들의 도서관 사랑만큼은 흔들림이 없다. 이 또한 도서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다섯 가지 길’이 큰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책에서 삶을 질문하고 길을 찾는다.

두 번째, 공간에서 사람과 세상을 만난다.

세 번째,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교육 운동을 한다.

네 번째,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지향한다.


다섯 번째, 시민이 교육·문화·사회·정치 등 지역사회의 주체가 된다.

이용자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로 뿔 각오를 다지는 운영진.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돌착. 앞으로도 역곡의 사랑방으로 나아가 주민들의 삶 속의 튼튼한 울타리로. 역곡마을에서 가장 사람이 넘쳐나는 공간으로 성장하길 바라본다.

“처음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쉴 틈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 연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관점을 바꿨어요. 내가 먼저 마을을 만들어보자. 그 시작이 바로 작은도서관이었어요. 내가 만든 마을에서 사람들과 연대를 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구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속에서 돌착의 역할입니다.”





Part 03   
특화 작은도서관

- 길 작은도서관 : 마을 기록 특화
-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 : 노인 특화
- 책이랑 작은도서관 : 마을 기록 특화
-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 만화 특화

# 작은도서관에서 쓰여진 한편의 시

길 작은도서관

전남 곡성 서봉마을에는 따뜻한 시 한 편이 쓰여진 도서관이 있다. 아름다운 시화 벽화가 눈을 사로잡는 길 작은도서관이 바로 그 주인공. 길 작은도서관은 문학과 씬이 공존하는 향유공간으로 영화 '시인 할매'의 명성까지 더해져 곡성의 빠질 수 없는 여행코스가 되고 있다.



### 운영

평일 09:00~21:00  
주말 09:00~21:00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전남 곡성군 입면 서봉탑동길 68-1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s://cafe.naver.com/way2050>

## 시골 마을에서 피어난 문화의 새싹

소박한 시골 마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길 작은도서관은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 많은 서봉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이라는 문화의 씨앗을 심었다. 2004년 문을 연 이곳은 동화와 같고 영화와도 같은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도 피어나는 중이다.

길 작은도서관은 입구부터 여느 도서관과는 사뭇 다르다. 도서관 담벼락에는 온통 시와 그림들로 가득하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할머니와 아이들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금세 미소가 절로 나온다. 꾸밈없는 글에 미소를 짓다가도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훔치기도 한다. 도서관 곳곳 세심함이 느껴지는 장식물과 글씨들은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사랑이 물씬 풍긴다.

서봉마을에 이사를 오게 된 김선자 관장은 저녁 늦게까지 집에 가지 않고 마을 곳곳을 배회하는 아이들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아이들은 논이나 밭에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을 기다리느라 저녁도 먹지 못한 채 마을 어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대학 시절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김 관장은 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서관 운영을 시작했다. 자그마한 가정 문고로써 3,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시작해 지금은 6,000권에 달하는 많은 장서 수를 가진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넓고 평탄하진 않더라도 세상엔 다양한 길이 있다’를 모토로 삼고 이용자들에게 알리고자 길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붙였다. 도서관을 통해 자신의 길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서관은 오늘도 절찬리 운영 중이다.

###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길’ 기록관



길 작은도서관만의 특별함은 바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대출과 반납 위주의 도서관 업무에서 살짝 벗어난 기록은 마을공동체의 역할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아이들의 시화를 통해 서봉마을의 미래를 살짝 들여다보고, 할머니들의 시를 통해 세월의 깊이를 느낀다. 이처럼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며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24시간 열린 도서관으로 아이들에게는 학교이자 야지트이다.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줄 프로그램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여러 분야의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고려해 동시 글 놀이반, 미술공예반, 악기야 놀자 반, 작가 특강 등 뚜렷한 분야가 느껴지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했다. 덕분에 아이들은 그 흔한 학원 없이도 방과 후를 알차게 보낸다.



2017년 곡성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길 작은도서관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시간을 만들어줬다. 바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동시집 《잘 보이고 싶은 날》을 출간한 것이다. 43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한 이 동시집은 아이들의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졌다. 아이들이 직접 쓴 시를 다듬고 덧붙여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온 동시집은 큰 성취감과 값진 경험을 안겨줬다.

어느 날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커다란 촬영차와 카메라들이 쉴 새 없이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길 작은도서관 시인 할매들이 드디어 일을 낸 것이다. 서봉마을의 인기스타가 된 시인 할매들은 어떤 계기로 시작한 걸까.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일손이 부족하던 때 도서관을 마실 가듯 오가는 할머니들이 있었다. 놀러 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책을 정리해주는 할머니들에게 운영진들은 얼마나 감사함을 느꼈는지 모른다.

“책 정리를 도와주던 할머니가 책을 자꾸 거꾸로 꽂으시더라고요. 말씀을 드려도 계속 그러시는걸 보고 할머니들이 한글을 모른다는 걸 깨닫고 한글 교실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은 2015년 곡성 문학상에서 큰 쾌거를 이뤘다. 이를 계기로 할머니들은 늦깎이 시인으로서 등단을 알렸다. 할머니들이 며느리로 살아온 '시집살이'와 만학도가 된 할머니들의 세월이 녹아있는 '시집살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시집을 발간하면서 작가로 탄생했다.

사박사박  
장독에도  
지붕에도  
대나무에도  
걸어가는 내 머리 위에도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사박사박

- 눈 (윤금순 할머니)

시집을 출간하고 한 다큐멘터리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할머니들의 시집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해온 것이다. 급기야 시작한 촬영은 1년 동안 진행됐다. 영화는 고단한 시집살이와 가족이 전부였던 할머니들의 삶을 시로 풀어내는 과정을 담았다.

할머니들은 “쫄쫄 따라댕김서 징허게 찍어썸더니 나온 건 찌꺼기 밖에 없다.”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셨다. 영화 덕에 KTX도 타보고 예쁜 연예인도 만나보고 행복했다고 한다.

“할머니들은 즐겁고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씀하셔요. 작은도서관은 마을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관계들을 유기적으로 풀어내고 기록하는 역할을 하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해요. 시인 할매로 이 역할에 한층 더 다가갔다고 생각해요.”

## 소박한 시골 마을에서 무럭무럭 큰 꿈을

도서관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샘솟는다. 전 세대를 위한 책과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문화향유 공간으로 서봉마을을 넘어 어느새 곡성의 유명인사가 된 길 작은도서관. 아이들은 다정다감한 어른들에게 인생을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한 삶의 교과서가 되어준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알려져 인근 마을의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오거나 여행객들의 휴식처로 거듭났다.

이에 발맞춰 길 작은도서관은 활발하고 알찬 운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6년부터 지자체 공모사업에도 응모하며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받는다. 얼마 전에는 도서관 내부에 비가 새는 문제와 낡은 지붕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SOC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돼 내부공사를 할 수 있었다. 그래도 여전히 곳곳 내부 수리할 곳이 남아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아쉬움은 남아있다. 고정적인 운영지원금이 전무하다 보니 김선자 관장은 2012년부터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도서관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

어려운 운영 여건이지만 도서관으로 인해 변화된 마을을 보면 운영진들은 더없이 부듯하다. 세 개의 마을에서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시인 할머니 등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길 작은도서관은 작은 포부를 갖고 있다. 바로 서봉마을을 작가촌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 벌써 3권의 책이 도서관을 통해 탄생했지만 지속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들의 개인 그림책 출간도 준비하고 있다.

“길 작은도서관을 통해 젊은 청년들이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도 비전을 갖고 미래를 꿈꾸는 환경이 조성됐으면 해요.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 열심히 기록하고 마을의 모든 걸 써 내려 가렵니다.”

# 노년 그리고 예비 노년을 위한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

최근 여러 매체에서 옴로(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즐겨라’는 의미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인천시 부평구에는 옴로 라이프를 완벽히 즐기고 있는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이 있다. 노인특화 작은도서관으로 노년과 예비 노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용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 운영

평일 09:00~18:00  
주말,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749,  
(십정동) 2층 2호(십정동, 신명빌딩)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http://blog.naver.com/snailme>

## 외롭지 않은 노년도 있다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은 12년 동안 청천동에서 운영된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이 전신이다. 영상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웠던 곳이다. 임대료 문제로 폐관 위기에 직면했다가 십정동에 새 동지를 틀고 노인특화 작은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다시 시작한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은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이 추구하던 마을의 역할과는 조금 달리, 노년에 집중했다.

“노년이라고 했을 때 아프고 외로운 이미지가 많아요.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은 그 이미지에 물음표를 던졌어요. 왜 노년이 외롭고 아파야 해. 충분히 행복하게 현재를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노인특화 작은도서관 구성이 시작됐어요.”

특화 부문을 노인으로 방향을 잡고 이름을 공모했다. 전신인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의 ‘달팽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노년을 즐겁고 건강하게 맞이하자는 의미와 느릿느릿한 달팽이에게 역동성을 불러 일으키고자 ‘춤추는달팽이’로 문을 열었다.



## '나이 들'에 공감하는 춤추는달팽이만의 방법

도서관을 둘러보면 큰 글씨책인 빅북 그림책 코너와 곳곳에 놓여 있는 확대경과 돋보기안경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유난히 눈에 띄는 어르신, 노년이라는 단어가 노인특화 작은도서관임을 말해준다.

“어르신들의 원활한 독서를 위한 책과 장비들은 알다시피 굉장히 비싸요. 빅북은 기본 책보다 두 배 정도 하구요. 그림에도 최대한 많이 구비하는 이유는 도서관이 아침 9시 개관인데도 8시부터 기다리는 어르신들 때문이죠.”

그림책 위주였던 달팽이미디어도서관에서 이사 올 때 가져온 그림책도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책 중 하나다. 최선미 관장은 틈틈이 어르신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기도 한다. 꿈과 관련한 책을 읽을 때면 드림캐처를 만들고 바느질로 거울도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 이용자들은 절대 오지 않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그래요. 달팽이미디어도서관에서 육아 프로그램, 골목시장 탐험대 등 마을 위주 프로그램으로 엄마들을 이끌어낸 것처럼 어르신을 위한 도서관에 맞는 프로그램과 도서관 이미지를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저절로 모일 것이고 또 자연스럽게 모임으로 발전할 것으로 봐요.”



어르신들을 위해 엄선한 그림책과 그에 어울리는 양질의 프로그램 또한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의 자랑이다. 어느새 시즌2를 맞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년 생활'은 춤추는 달팽이 작은도서관을 대표하는 간판 프로그램으로 노년뿐만 아니라 예비 노년을 위해 즐겁고 알찬 노후를 보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슬기로운 노년 생활은 총 10회로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진행한다. 파트1은 '나나쌀롱: 지금 나답게 나이들 시간!'을 테마로 연령과 끈대 주의, 우리들의 갱년기, 내 마음대로 나이 들기 선언, 우리는 어떻게 늙을 것인가 등 인문학적인 생각을 나누는 강좌로 진행했다. 파트2는 '5060 실용 강좌'를 테마로 은퇴 후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노년들을 위해 귀농·귀촌 먹고살기, 온라인 스마트샵 차리기, 여행이 더욱 즐거워지는 글쓰기 등의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물론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다. 이 과정을 통해 이용자들은 나이 들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깨닫는다.

이외에도 어른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 어르신 그림책 배움터, 요양보호사 그림책 모임 등이 활발하다.



요양보호사 그림책 모임은 요양보호사들의 모임으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그림책이 어떻게 유의미한 매체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책 놀이 등을 진행해 어르신의 재밌는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모임이다. 어르신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동아리로 춤추는달팽이 작은도서관의 대표 동아리로 자리매김했다.

어르신을 위한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이용층을 어르신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그림책과 성인책도 구비했다. 달팽이미디어도서관에서 이사 오면서 대대적인 책 정리 이후 현재 장서는 5,000권에 달할 만큼 많은 장서도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한다.



## 느리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최선미 관장은 여러 프로그램이 끝나면 오히려 더 바빠진다. 프로그램의 여러 이야기를 담은 활동 영상 때문이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진행했던 프로그램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추억을 회상하고 '이만큼이나 했구나' 하는 부딪힘을 느끼며 원동력도 얻는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영상은 이용자와 후원회원들과 함께 나눈다.

도서관의 운영 재원은 후원회비와 외부 지원을 통해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후원회비는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다. 모자라는 운영비는 지자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하기도 한다.

“달팽이미디어도서관은 부평구 작은도서관의 상징일만큼 인기도 좋고 잘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었어요. 실제로 작은도서관 평가에서 몇 년간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요. 하지만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문을 닫게 되면서 운영을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매우 안타까웠어요. 작은도서관은 버티는 게 아니라 성장해야해요. 앞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이나 작은도서관 지원이 확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춤추는 달팽이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건강한 노인 문화를 위해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으로 노인특화 작은도서관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럼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원동력은 ‘스스로가 즐거워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작은도서관은 제 몸에 딱 맞는 일처럼 언제나 즐거워요. 새하얀 도화지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기분이지요. 내가 즐거워야 신나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즐겁지 않을까요?”

도서관의 이름처럼 느리지만 분명하고 선명한 몸짓으로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 마을을 수호하는 우리 동네 역사 기록관

책이랑 작은도서관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1995년 문을 열어 올해로 25살이 된 경기도 성남시 작은도서관의 터줏대감이다. 긴 세월 동안 여성들의 학교, 노동자들의 쉼터, 주민들의 마을공동체까지 수많은 역할을 수행해온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오늘도 주민들의 곁에서 변치 않는 나무처럼 함께 하고 있다.



### 운영

평일 10:00~19:00  
토요일 10:00~17: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 주소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상대원1동 박석로 25번길 44-10번지

### 유형

사립 작은도서관

## 따스운 정과 사랑이 넘치는 상대원동 '만남의 집'

비탈진 길을 지나 오래된 주택들이 즐비한 골목을 걷다 보면 높은 언덕이 보인다. 굽이굽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지나면 상대원동 주민들의 보물 같은 공간 책이랑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주위에 문화시설이 없어 손주에서 할머니까지 3대가 이용하고 있다는 이 작은도서관은 하루에도 수십 명이 오가는 상대원동의 만남의 집이다.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건물 전체를 도서관 공간으로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도서관 앞 넓은 마당도 이곳의 자랑거리이다. 도서관 마당의 작은 밭에서는 싱싱한 농작물을 재배해 수확의 기쁨을 얻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는 프로그램 '공유 부엌'을 드넓은 마당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정겨운 마당을 뒤로하고 도서관에 들어서면 빼곡한 서가들이 눈에 띈다. 장서는 총 15,000 여권, 엄마와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가득하다. 지하에는 프로그램실을 따로 마련해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만큼 모범적이다. 이는 운영 전반을 맡은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이하 함주부)'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작은도서관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했다.

함주부의 출발은 지금의 도서관 건물에서부터 시작했다. 청계천 이주민들이 몰려오던 70년대, 무료 탁아소와 한방 치료 등을 진행하며 이웃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그 당시 이곳의 이름이 만남의 집이었다. 80년대,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낮에는 공단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인권과 노동운동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하며 민주화 운동의 거점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노동 인권교육을 받고 노동운동을 함께한 여성들은 어느새 결혼을 하고 엄마가 됐다. 그리고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인가를 같이 배우기 시작한 모임이 함주부의 뿌리가 된다.

출범하면서 회원들은 여러 교육을 받으며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려웠던 여성들은 함께 교육을 받으며 도서관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에 회원들은 뜻을 모아 아이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책이랑 작은도서관을 조성했다.

현재 도서관을 이끄는 운영진들은 사람의 성장을 이끌어 주고 주민들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키워 나가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간이 되기를 꿈꾼다.

## 삶을 나누며 정이 더해지는 곳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곳곳이 이용자들의 손길로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도서관을 장식하고 있는 꿈이 담긴 작은 엽서부터 아이들의 서툰 손길에 느껴지는 귀여운 그림들까지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중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2층을 올라가는 계단을 수놓은 자수들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뛰어난 솜씨가 돋보이는 자수들은 동아리 '북 공작소' 회원들의 작품이다. 꼬박 6개월 동안 책 《넉점반》 한 권을 자수로 표현한 작품은 한땀 한땀 수놓은 회원들의 섬세한 손길이 느껴진다. 회원들의 뛰어난 실력 덕분에 여러 공공도서관에서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도서관 곳곳을 빛내주는 작품들도 눈에 띄지만 주민들의 만남의 집이 된 비결은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맞이해주는 운영진들 덕분이다. 아이와 주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과 보람을 느낀다는 운영진들은 도서관을 가장 빛나게 해준다.

도서관에서 책 읽기가 어색한 아이들을 위해 마련한 보드게임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웬만한 보드게임 카페보다 많은 약 160점의 다양한 보드게임을 보유하고 있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그 대신 책이랑 작은도서관만의 작은 규칙이 있다.

보드게임을 하기 전 책 세 권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것. 아이들은 즐거운 보드게임을 위해 책 읽기도 마다하지 않고 순식간에 읽는다. 보드게임은 부모님 동반 시에는 대여도 가능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도 있다.

운영진들은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과 동아리를 기획하고 운영한다. ‘책 보따리’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책 놀이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운영진들이 직접 만든 책 보따리는 선정된 책과 그 책에 관련된 책 놀이를 직접 개발해 보따리 형식으로 만들어놓았다. 운영진들은 애정을 가득 담아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책 읽기를 알려준다.



책이랑 작은도서관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로그램들은 이용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역사 수업, 현장 견학, 북 트레일러, 하룻밤 캠프 등이 있다. 그중 하룻밤 캠프는 올해 10주년을 맞은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1박 2일을 보내며 책도 읽고 퀴즈도 풀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며 친구도 사귀는 일석삼조 프로그램이다.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최장수 동아리 엄마들의 모임 민들레도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다. 자녀들이 유아시기에 만나 어느새 대학생이 된 민들레는 서로 소통하며 책도 읽고 함께 체험학습, 견학을 한다. 민들레는 유독 다자녀 가정이 많아 견학을 할 때면 몇십 명의 회원들이 복작복작 움직이기도 한다. 민들레 회원들은 오랜 시간 함께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보듬어주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고 말한다.

운영진들은 근처 문화시설이 없거나 도서관에 방문할 시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이동도서관 봉사도 하고 있다. 현재는 상대원 시장 상인들을 위해 한 편의 정겨운 시(時)와 함께 책을 배달하는 이동도서관 서비스도 지원한다. 1인 점포가 많아 자리를 비우기 힘들었던 상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서비스다. 2015년 봄부터 시작한 시장 책 배달 서비스는 어느새 고정 이용자도 생기고 이제는 본인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주는 주민들도 생겼다.

책이랑 작은도서관은 2017년 뜻깊은 프로젝트를 만나 한 권의 책을 탄생시켰다. 이사 등 불뿔이 흩어져 있던 초기 운영진들도 모여 지난 시간을 추억하며 생생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았다. 방대한 자료와 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어낸 생생한 기록을 <<뜻이 만든 길, 그 길을 걸은 우리>>로



출간할 때 운영진들은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른다. 도서관의 역사와 이야기가 가득 담긴 책은 도서관을 넘어 상대원동 마을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주기도 한다.

### 작은도서관이 잊지 말아야 할 건 ‘책’

마치 친구네 집에 놀러 온 듯 정겨운 느낌을 주는 책이랑 작은도서관. 오랜 시간 열심히 운영해온 책이랑 작은도서관의 과제는 도서관 서비스에 조금 더 충실히 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을 많이 읽혀야 하는 도서관의 본질은 잃지 않아야 한다고 운영진들을 말한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책을 더 친근하게 읽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부분이다.

책이랑 작은도서관의 관리 직원은 관장 포함 상근직 1명에 평생교육사 1명으로 총 3명이 운영하고 있다. 벽찰 때도 있지만 주민들의 성장 모습을 보면서 힘든 내색 없이 도서관을 지키고 있다. 25년 동안 오랜 시간 운영해온 운영진들은 조금 더 안정적인 운영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한다. 적어도 5년 뒤는 내다볼 수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가장 역사가 깊은 작은도서관으로 모범적인 역할을 하는 책이랑 작은도서관. 운영진들의 지치지 않는 열정의 원동력은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이다. 앞으로 주민들의 든든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오랜 시간 상대원동의 안식처로 빛나주길 기대해본다.

## 시대의 바른 생각들이 모이는 문화광장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부천시 괴안동 어느 초등학교 앞 높은 언덕을 지나면 괴안동 사람들의 문화 아지트인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이 보인다.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신도시와는 사뭇 고립된 느낌이 든다. 그곳에서 곳곳이 지역민들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을 만났다.



운영	주소	유형
월10:00~17:00, 화,수,목,금 08:40~17:30 주말 10:00~15:00 (일요일, 법정 공휴일 휴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79번길 42, (괴안동) 2층 언덕위광장	종교 시설 문고 네이버밴드 언덕위광장

## 사람들이 모이고 소통하는 광장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은 부천시 제106호 작은도서관으로 2015년 지금의 모습을 갖춰 개관했다. '어.울림 교회'를 운영하면서 주중에 비어있는 공간을 방치하고 싶지 않았던 남태일 관장이 도서관을 만들었다.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은 사람들이 만나고, 함께 책을 읽으며 마을의 아지트로 도약하고 있다.

“도서관을 시작하면서 생각한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그 아이들의 학창 시절을 조금이나마 즐겁게 해주고 싶은 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죠.”

운영진의 온정은 도서관의 곳곳에서도 물씬 느낄 수 있다. 아기자기한 소품은 물론 이용자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게시판은 딱딱한 도서관이라는 이미지를 잊게 한다. 친구네 집에 놀러 온 듯 아늑한 분위기와 따뜻한 차 한 잔이 있어 누구든 쉬어갈 수 있다.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은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돼가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건강한 담론들이 오가는 공간으로써 함께 어울리며 위로를 얻는다.



## 아이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만화책' 서가

부천시는 일명 만화 도시로 유명하다. 공공도서관에는 웹툰이나 만화책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고, 매년 만화페스티벌이 크게 개최되는 등 부천인들의 문화생활에서 만화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은 이런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춰 특화 부문을 만화로 선정했다. 영상 세대인 아이들이 글이 많은 책을 갑자기 읽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해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은 학습만화는 물론이고 최신 유행하는 웹툰도 빠짐없이 수서하고 있다. 도서구입의 70%를 만화에 집중할 만큼 다양한 만화책으로 책장을 채웠다.

“만화도 요즘엔 수준 높은 작품들이 아주 많아요. 웹툰 장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만화책의 주제도 다양해졌죠. 만화라고 해서 가벼운 주제만 다루진 않아요. 역사, 철학 같은 묵직한 주제를 가진 만화책들도 아주 많죠. 오히려 이런 만화책들은 아이들의 흥미를 더 이끌어낼 수 있어요.”

만화책은 아이들에게는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해주고,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 당시에는 골목 어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만화책방이 많이 사라진 요즘 어른들은 추억을 품고 이곳을 찾는다.

## 배우면서 함께 더 큰 세상을 만든다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은 책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주민들이 책을 통해 자신을 알아가며 사람들을 만나고, 더 큰 세상을 만나길 바라는 소망에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기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엄마들의 역사 독서동아리 ‘허스토리’이다. 도서관 초기부터 시작해 4년 차에 접어든 장수 독서동아리로서 육아와 일상에 지친 엄마들이 모여 역사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는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응시하는 등 전문적인 역사 지식을 갖춘 여성들을 발굴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독서동아리다.

이 외에도 도서관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빠들의 독서 모임 ‘씨클 하는 아빠들’도 활발하다. 퇴근 후 동그런 씨클처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다 해서 ‘씨클 하는 아빠들’이라는 이름이 붙은 아빠들의 독서 모임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 토킹 스틱을 들고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는 일급 비밀로 부쳐야 한다는 사실! 개인 가정사와 사회생활 이야기 등 다양한 생각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배워간다.

독서동아리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다. 만화작가와 함께하는 작가와의 만남, 청소년 대상으로 어려운 철학을 쉽게 배우는 철학반, 아이들의 기본 역사 상식을 위한 역사반, 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회복적 정의 모임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지역 주민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프로그램들로 괴안동 일대는 독서문화가 넘실댄다.

## 삶은 나눌수록 채워지는 법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인구 밀도가 높은 부천은 매일 많은 사람들이 만나 부대끼며 살아간다. 이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 틈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들이 많다. 이곳에서는 소통에 힘들어하고 이야기에 지친 사람들이 작게나마 푸념을 털어놓는다. 그 푸념들이 모여 다시 건강한 소통이 오가는

공간이 바로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이다.

지금처럼 괴안동의 문화광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운영진의 열정, 주민들의 관심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높은 평가를 받아 적게나마 운영비를 지원 받지만 재정과 인력 문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여전히 빠듯한 운영비는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도전하거나 뜻 있는 이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함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든 순간이 보람차다고 말하는 운영진들이 있어 앞으로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

“저는 관장직을 맡고 있지만 관장으로 불리기보다는 도서관을 지키는 광장 지기로 불리는 게 더 좋아요.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주민 모두가 마을회관처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오랜 시간 남고 싶어요.”

앞으로도 괴안동의 문화광장으로 주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라는 언덕위광장 작은도서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라는 이름처럼 언제나 사람 냄새 가득한 공간으로 빛나길 기대해본다.





Part 04

## 작은도서관의 숨은 지원군 이야기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봉사동아리 도서관 희망원정대  
국립중앙도서관 책수레 봉사단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이야기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봉사동아리



## 도서관희망원정대

예비사서로서 관련 지식을 보유한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작은도서관을 위해 힘을 모았다. 작은도서관 봉사활동 동아리 도서관희망원정대가 열정을 쏟아 작은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전국 곳곳을 누비며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희망원정대 25기를 만나 그들의 활약상을 들어봤다.



### 예비 사서들의 뜻깊은 재능 나눔



전국 작은도서관이 6,000개를 넘어서면서 동네 곳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됐다. 매년 약 200개의 작은도서관이 새롭게 개관하고 이용자를 맞이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지만, 특히 전문 사서 인력은 도서관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하지만 예산 문제와 환경적

상황 때문에 전문 사서 인력을 확충하기엔 쉽지 않은 곳이 많다.

도서관희망원정대는 이처럼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위해 만들어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동아리다. 13년이라는 긴 전통을 가진 도서관 희망원정대는 지역적 한계로 정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에게 교육과 정보의 창을 담당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학과 생활을 하면서 도서관 현장 경험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론 중심의 수업이 많아서 현장 경험을 할 기회가 적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있던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현장 경험도 하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어요.”

도서관희망원정대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찾아다니며 학기 방학마다 봉사활동을 한다. 대대적인 장서 점검이나 이용자 교육을 위해 기본 3~4일은 소요되기 마련이다.

방문할 도서관이 결정되면 운영자와 수차례 소통의 과정을 거친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주된 이용자는 누구인지, 몇 권의 장서가 있는지 등을 파악해 사전답사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도서관에 적절한 봉사활동을 계획한다. 체계적으로 책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서가에 배가까지 진행한다. 이 밖에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도서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도 한다.

작은도서관 관련 지식이 부족한 운영자들에게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실제 운영자들에게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듣는다. 서로가 성장해가는 발판으로 질 좋은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작은 손길로 도서관의 생기를 불어넣다



25기 도서관희망원정대가 서울의 어느 작은도서관을 찾은 사례로 구체적 활동 이야기를 들어봤다. 3일 동안 진행한 봉사활동으로 장서 점검과 아이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주 활동이었다. 당시 가로 배열인 서가를 세로로 바꾸길 원하는 운영자의 의견을 듣고 서가 배열을 먼저 시작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반듯하게 정리된 서가를 보자 그간의 고생은 눈

녹듯 사라졌다.

“도서관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면서 대대적인 장서 점검이 필요했어요. 옮겨오는 과정에서 책도 많이 분실되고, 오래된 도서들도 많아 폐기 작업도 함께 진행했어요. 긴 시간 진행했지만 재정비된 도서관의 모습을 보면 진짜 사서가 된 것처럼 뿌듯해요. 나는 사서가 적성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웃음)”

도서관희망원정대는 나름 오랫동안 유지해온 동아리지만 외부 노출이 적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태다. 부원들은 봉사할 작은도서관을 찾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한다. 매번 도서관 메일링리스트에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신청 수가 적어 봉사에 적합한 도서관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앞으로는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나 홈페이지 등과 연계한 홍보 활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찾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다른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매번 학기마다 새로운 부원들을 받고 있지만 모집 인원 수가 적다는 것. 학과 내에서도 도서관 관련 직종보다 다른 길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 동아리 홍보가 쉽지 않은 탓이다. 부원들은 동아리 활동이 지속되어 작은도서관의 부름에 언제나 답하고 싶은 바람이다.

“많은 곳을 방문하고 싶지만, 현재의 인원으로는 한정적이어서 아쉬워요. 학과 공부에서 벗어나 이런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부원이 늘어나게 되면 학기 중에도 하루 정도 봉사활동을 가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추후에도 도서관들과 이어졌으면 해요.”

## 도서관희망원정대가 만드는 작은도서관 세상



도서관희망원정대는 5월에 한 번, 11~12월 사이에 한 번으로 연 2회 신청을 받는다. 앞으로는 도서관메일링리스트 외에도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http://www.smalllibrary.org>)에서도 공지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장서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개발해 작은도서관의 보탬이 되리라는 부원들. 새로운 독서문화를 이끌 예비 사서들이 만들어가는 작은도서관 세상을 기대해본다.

“사서를 꿈꾸는 우리들의 도서관 봉사활동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지요. 사서로서 한 걸음 뜻깊게 내디딘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도서관희망원정대가 많이 알려져서 작은도서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작은도서관으로 만드는 세상을 위해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의 재능 기부, 작은도서관을 꽃피우다!



책수레봉사단

전문가의 손길이 간절한 작은도서관을 위해 대한민국 대표 도서관 사서들이 뭉쳤다.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의 직장 내 재능 기부 모임 '책수레봉사단'이다. 이들은 운영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 공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활동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돕는다. 누구나 책을 통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문화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책수레봉사단의 존재 이유다.

### 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행복 가득 사서들의 책수레



전국 6,500여 개에 달하는 작은도서관 중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는 곳은 과연 몇이나 될까. 최근 들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은도서관의 상황은 열악하다. 특히 전문 사서 인력이 투입되지 않은 도서관은 조성부터 운영까지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한다.

책수레봉사단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힘이 되는 사서들의 재능기부 모임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복남선 사서가 복지관의 책 더미를 작은도서관으로 재탄생시킨 것을 계기로 행복 나눔 책수레를 이끌었다.

“2010년 서울 서대문구 아동복지시설 송죽원에 도서 기증차 들렀다가 정리되지 않은 책으로 가득한 서가를 보게 된 것이 시작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사서로서의 경험을 살려 도와주고 싶었죠. 관장님께 책을 정리해주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다행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동료 사서들과 함께 책수레봉사단을 꾸리게 됐어요.”

이렇게 결성된 책수레봉사단은 지난 10년간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을 돌며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도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체계적으로 책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독서 지도와 프로그램 지원 활동도 병행하고, 사비를 털어 희망도서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한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관련 지식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운영자들을 돕고, 도서관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사서로서의 사회적 책무라는 이유에서다.

책수레봉사단의 목표는 책을 통해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책과 독자가 있는 곳에 도서관을 만들어 어느 누구도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회,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의 내일이다.

### 사서들의 손길, 뒤죽박죽 서가를 체계적으로 바로잡다



사서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시작했지만, 재능 기부는 생각보다 '더'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작은도서관은 사서 배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분류와 목록이 안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작은도서관관리시스템(KOLASYS-NET)이 배포되어 있음에도 활용을 못하고 수기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했다.

“송죽원의 경우 6개월 넘게 매주 토요일을 꼬박 할애해 재탄생시킨 공간이에요. 1만 8천여 권의 책을 정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서가에 있는 모든 자료를 꺼낸 후 종류별로 분류하고 책 한 권 한 권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해 목록을 작성해 나갔습니다.”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끈기를 가지고 작업한 결과 번듯한 작은도서관으로 완성됐을 때의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는 책수레봉사단. 중구난방이던 책 더미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자 책이 비로소 책으로서 빛났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도서관을 찾아 책을 보고 즐거워하는 아이들은 그간의 고생을 씻어주기에 충분했다.

“어린이들이 책에 관심을 갖고 도서관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볼 때의 뿌듯함을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서는 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읽고 싶은 책이 가득한 서가를 만들어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책수레를 이끄는 인원은 20여 명 남짓. 협소한 공간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4~5명씩 팀을 구성한 후 방문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방문 봉사를 원칙으로 진행하나, 선정된 봉사기관의 행사 등으로 인력 투입이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율해 추가 방문하기도 한다. 상반기에는 작은도서관 도서 정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부분(소장 도서의 분류, 목록, 제적, 시스템 교육 및 기술지원), 하반기에는 도서 기증 및 운영 자문을 진행한다. 산간벽지 아동복지시설 등에 책을 기증하고 독서지도와 다독상 등의 프로그램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부족한 시간이다. 평일에는 현업으로 활동이 어려워 휴일을 활용해야 하는데, 당직과 주말 근무도 소화해야해서 스케줄 조율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열정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있기에 힘을 낸다. 도서관 운영의 중요성을 느끼고 노력해주는 분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도서관 운영자분들이 고맙다고, 책수레 사서 선생님들 최고라고 해주실 때 더없는 보람을 느껴요. 사실 저희가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도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도 고마워해주실 때면 가슴이 벅찰 정도로 감동이 밀려오곤 하죠. 거기에 힘을 얻어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 전국 곳곳 책수레의 손길이 미치도록



책수레 가득 도서관 문화라는 씨앗을 담고 독서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 동호회 우수상, 2015년 공무원 재능나눔지원봉사 우수사례 최우수상,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중앙공무원 동호회운영 우수상, 2017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기관에 힘을 보태고자 2018년 9월부터는 이메일 신청도 받고 있다. 책수레봉사단의 행보를 더 넓혀가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의 인원으로는 도움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전국 곳곳 책수레의 손길이 닿기 위해서는 현직 사서, 그리고 현재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미래 사서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 지원 정책 또한 절실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곳은 많은데 모든 기관을 살펴볼 수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까워요. 사서들이 도서관 밖으로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재능기부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값진 경험을 다른 사서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체계화된 정책이 마련되어 작은도서관이 독서문화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그날까지 책수레의 행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세요.”

## 작은도서관 성장을 이끄는 사람들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이야기

작은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순회사서'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은 사서가 없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순회사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지자체마다 조금씩 운영의 형태는 다르지만,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순회사서 한 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평소에도 자주 이용했고요.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나마 사서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중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사업에 대해 알게 됐고 작은도서관 관련 경험부터 쌓아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 ■ 순회사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순회사서는 많게는 작은도서관 5개관까지 맡아요. 저도 5개관을 맡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1개관씩 출근하고 있어요. 업무는 일반 사서와 비슷해요. 조금 다른 점은 체계를 잡아주는 일을 한다는 점이에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도서도 수기로 작성하고, 자료관리 프로그램도 활용하지 않는 도서관들이 많죠. 책을 컴퓨터에 입력해주는 전산 작업 등 도서관 운영의 기반이 되는 일들을 주로 해요.

기본 업무인 책정비를 하고, 대출과 반납,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속 시립도서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순회사서들을 만나서 회의를 해요. 업무 진행 상황을 나누고, 솔직하게 힘든 점을 풀어놓기도 하죠.(웃음)

#### ■ 일주일 동안 다른 도서관에 출근하면 업무도 차이가 있나요

맞아요. 각 도서관의 운영 형태에 맞춰 업무를 해요. 책정비가 부족한 작은도서관은 정비 중심으로, 특화도서관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요. 일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도서관은 관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관장님의 생각과 운영 방식이 그 도서관의 모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업무의 바탕이 되는 건 언제나 관장님들과의 소통이에요.

#### ■ 순회사서를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가장 보람 있었던 건 도서관이 나로 인해 체계가 잡혀가는 게 눈에 보일때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도서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냥 책만 있는 정도였어요. 책을 일일이 검수하고 정비해서 책장이 채워져 갈 때 정말 뿌듯했죠. 정갈하고 깔끔한 서가는 언제봐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로 인해 도서관이 변하고 누군가가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 ■ 업무에 어려운 점은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소속감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지요. 매일 다른 도서관을 방문해서 일을 하다 보니 어디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한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시스템이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일만 진행하죠. 체계를 잡아주는 정도인데 굉장히 아쉬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 관장님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소통도 어려워지고 일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그런 점이 아쉬워요.

### ■ 순회사서 사업의 어떤 점이 보완되면 더 효과적일까요

의미있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보완했으면 하는 점도 있어요. 순회사서 사업이 대부분 기간제예요. 1년 계약직이거나 어떤 곳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짧게 진행하니 순회사서들은 고용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실제 근속연수가 긴 순회사서들도 많이 없고요. 순회사서 사업이 더 성공적이려면 새내기 사서들이 아니라 작은도서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베테랑 사서들이 순회사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이 일을 시작하면 작은도서관의 성장도 눈에 띄게 빨라질 것 같아요.



### ■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을까요

순회사서 사업을 잘 활용한다면 작은도서관 성장을 분명히 극대화할 수 있어요. 성장을 위해서는 순회사서의 전문성과 작은도서관의 뚜렷한 운영 방향이 필요해요. 작은도서관이 어떠한 업무지원을 원하는지 설문조사 해서 각 작은도서관들이 원하는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자체와 작은도서관 사이의 중간관리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회사서에 대한 인식도 변해야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 메꿔주는 인력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용자들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니 자원봉사자로 인식해요. 엄연히 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가능한 인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죠. 작은도서관과 지자체 사이에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더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작은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작은도서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많이 느끼게 돼요. 마을공동체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해요.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존재하지만 작은도서관은 어느 공동체보다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작은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자부심도 많이 느껴요. 눈앞에서 마을공동체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 참 신기하고 부듯한 일이죠. 앞으로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요.



Part 05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이야기

전국 작은도서관 동아리 자랑  
작은도서관에서 찾은 인생책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소개

## 전국 작은도서관 동아리 자랑

2019년 11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전국 작은도서관 동아리 자랑' 이벤트에서 선정한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회원들이 직접 올린 동아리 이야기를 살펴보고 각 작은도서관을 빛낼 동아리 활동 계획에 참고하세요.

### 실버 작은도서관 책사랑+나눔



책사랑+나눔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빛으로 나눔을 실현하다'는 주제로 정읍시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관계자들이 운영하는 그림자극 동아리입니다.

독서 활동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직접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오던 중, 그림 동화책과 연계한 인형극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형극은 대중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림자극'은 아직 생소한 영역임을 깨닫고, 그림책을 그림자극으로 기획·개발해 아동이나 문화소외계층인 실버세대들에게 공연으로 새로운 독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가고자 동아리를 결성했습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의기투합했지만 그림자극에 대해 기초지식이 전무한 채 답보상태였다가 뜻밖의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바로 전북문화관광재단 공모사업인 2019 전북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아리아리 동동)이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동아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발적·자생적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사업으로 역량 있는 전문 강사를 섭외할 수

있는 강사비와 재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동아리 회원들과 고민한 결과물이 선정되면서 그림자극 강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매월 2~3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11월까지 그림자극 '흥부와 놀부'를 진행하기 위해 회원들과 열심히 연습했고 5월에는 첫 그림자극인 만큼 친근한 전래동화로 정해 등장인물 배역을 정했습니다. 호흡과 발성, 감정 표현법을 익히며 그림자극을 서서히 알아갔습니다.

6~7월에는 그림자극의 바탕인 대본을 작성해 인형을 만들고 중심 막대를 달고 팔을 움직일 수 있도록 쇠 단추로 관절을 만들어 실감나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스튜디오에서 대사 녹음을 하는 등 점점 그림자극의 모습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8~10월에는 모든 준비가 끝나고 회원들이 모여 대사를 주고받고, 연기 연습을 하며 11월에 있을 공연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11월 19일, 인근 어린이집 원아 35명을 초대해 초연했습니다. 다들 긴장된 마음으로 공연을 시작했지만 공연 내내 어린이들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회원들 모두 즐기며 신나는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동화책을 그림자극으로 만들어 활동하며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들과 공유하고 배움과 나눔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정읍 기적의 도서관 독서캠프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재능기부 공연도 기획 중입니다. 2020년에는 정읍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사업에도 지원해 수준 높은 그림자극을 기획·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림자극을 통해 지역사회에 배움과 나눔의 독서문화를 정착시키려는 회원들의 바람이 이제 첫발을 떴습니다. 차근차근 한발씩 나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설레던 첫발을 기억하며 책사랑+나눔은 계속될 것입니다.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참여한 그림자극 동아리! 7개월 동안 연습 또 연습을 반복하며 박수 소리와 환호성으로 보답해주는 아이들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이 감동을 계속 회원들과 나누고 싶어요.



## 이스트힐 작은도서관 북피클



북 피클은 '책(Book)으로 피어나는 북클럽'이라는 뜻으로, 책을 매개로 아이들에게 행복이 피어나는 시간을 선물하고픈 바람을 담은 이스트힐 작은도서관의 어린이 독서동아리입니다.

북 피클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운영위원회 주민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주민분이 가진 독서지도 재능을 토대로 아이들 대상 독서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특히 아이들이 많아 더 많이 들르게 해 도서관이 활기를 띠게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유아 그룹과 초등 저학년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북클럽은 선생님과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좋은 책을 많이 접하게 하고픈 운영진들은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북아트, 신체활동, 종이접기, 만들기 등 다양합니다.

시의성 있는 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핼러윈에는 아이들과 '핼러윈 북파티'도 진행했습니다. 핼러윈 관련 책을 읽고 다양한 크래프트 활동으로 더 쉽고 친근하게 독서를 접하게 합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북 피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처음 어린이 독서동아리로 시작했지만 북 피클은 더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단순한 독서동아리를 넘어 우리 아파트의 독서공동체로 아이들만 아닌 전 세대가 책과 독서로 이어지는 구심점이길 바라며 앞으로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 꿈드리 작은도서관 책 수다



'엄마가 독서를 시작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성장한다'는 모토로 독서동아리 책수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며 책 중심의 문화 전파를 위해 노력하는 책 수다를 소개합니다.

책 수다는 월 2회씩 한국십진분류표(KDC)를 활용해 다양한 영역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 영역의 책을 읽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비슷한 주제의 책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는 한국십진분류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제별로 나뉜 분류표를 바탕으로 책을 읽으니 여러 분야의 책을 고루 읽을 수 있었습니다. 회원들은 책을 읽고 논제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깊이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는 열성 있는 우리 회원들의 박학다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원들은 독서문화 전파를 위해 지역 활동도 합니다. 모체 격인 꿈드리 작은도서관 봉사는 물론 도서관 연계의 마을 축제도 주축이 되어 진행했습니다. 엄마들의 우먼파워는 2018 아파트 공동체, 2019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낳았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체육대회나 문화답사를 진행하며 작은도서관의 마을공동체 역할을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엄마들이 책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책수다는 앞으로 책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독서를 하고 또 소통할 것입니다.



책 수다에서 점차 공동체 육아까지 발전해 남양꿈드리함께육아 마을공동체로 확장되어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 힘들었던 시간을 독서와 책 모임 그리고 공동체 활동으로 치유받고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 흥해읍내만이 작은도서관 그림책 읽는 어른 독서회



그림책을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보여주지만 했던 어른들이 모인 흥해읍내만이 작은도서관의 그림책 읽는 어른 독서회는 그림책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었던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그림책 읽는 어른 독서회는 그림책의 역사를 공부하고 나아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또래 아이들에게도 그림책으로 세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픈 활동을 합니다.

매주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만나 그림책을 읽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그림책을 읽으면 좋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회원에게도 물어보니 시간마다 한 권씩은 너무 방대해 작가별로 나눠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국내·외 인지도 있는 작가들을 우선 선정해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 작가가 살아온 흔적, 신념, 생각 등 그림책에 녹아있는 많은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권의 그림책만 읽을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일명 '작가별 책 파먹기'를 하면서 더 세심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웃들과의 친밀함도 다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열성 넘치는 회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며 동아리 이름으로 그림책을 출판하고 싶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리 시작 때 항상 한 명씩 그림책 읽기를 하는데 다들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현재는 동아리 활동 때만 그림책 읽기를 하지만, 내년에는 방과 후 등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동화구연 재능기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그림책 읽는 어른 독서회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처음 모습 그대로 나이가 들어도 그림책 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 작은도서관 청춘 청춘의 독서



청춘의 독서는 충북 청주 작은도서관 청춘의 독서 동아리로 2030 청년들의 독서 모임입니다. 청년들의 독서토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져 작은도서관 청춘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춘의 독서는 바쁜 현대 사회 속 놓치고 있는 책 읽기를 함께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청년이란 무엇일까, 청년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격주에 한 번씩 모여 독서토론을 합니다.

도서는 자유롭게 선정하고 그 책의 북리더가 의제와 토론 거리를 만들어 독서토론을 합니다. 열띤 토론이 오가며 젊은 생각들을 나눕니다. 회원들은 토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며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실천할 것들을 정합니다. 한강 《소년이 온다》를 읽고 5.18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으로만 그칠 수 있었던 것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바뀔 때 견문이 넓어진 걸 느낀다는 회원들. 처음 시작은 독서와 토론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회원들이 늘어나고 함께 읽은 책이 많아진 것을 보며 독서동아리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 하늘품 작은도서관 기공체조 동아리



하늘품 작은도서관은 아이들과 함께 꿈과 마음이 쑥쑥 자라는 기공체조를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기공체조는 '기(氣)에 공(功)을 들인다'는 뜻으로 근육과 관절 이완, 체형 교정 등에 효과가 있어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 정도의 단조로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위해 신나는 놀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동적인 동아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다 기공체조 동아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 쌓인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와 긴장된 신체를 이완하는 체조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들이었지만 어느새 암전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체조 후 음악감상, 독서도 함께 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읽는 책은 집중력을 키워주는데 효과가 있어 아이들의 독서습관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동아리는 어느새 3년째 이어오고 있는 우리 도서관 대표 동아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공체조를 해온 아이들은 이제 만화책보단 차분히 글을 즐길 수 있는 책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도서관 이용자들을 상대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기공체조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진안푸른꿈 작은도서관 손으로 꿈지락



손으로 꿈지락은 진안푸른꿈 작은도서관의 다육아트, 생활공예 동아리로 손으로 만들고 표현하는 동아리입니다. 진안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동아리입니다.

지역주민과 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안푸른꿈책사랑회가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푸른꿈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은 진안푸른꿈책사랑회 회원들과 도서관 이용자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집니다. 2~3명씩 마음 맞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던 와중에 소규모 단위의 모임을 통합하고 '손으로 꿈지락'이라는 명칭을 붙이자는 의견이 나와 현재의 동아리가 됐습니다.

손으로 꿈지락은 냅킨아트, 한지공예, 다육아트, 캔아트 등 손으로 만들고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합니다. 회원들의 절반이 워킹맘으로 이뤄져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모여 활동을 합니다. 회원들이 자신이 잘하는 분야의 활동을 한 주씩 돌아가며 다른 회원에게 가르쳐주고 또 같이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활동에서 배우고 익힌 재능을 개인의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다시 이웃과 함께 나누며 지역사회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회원들 모두 자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무엇이든 만들고 있는 손으로 꿈지락은 진안푸른꿈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지역의 경로당과 타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더 소중하고 값진 것들을 다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 무지개 작은도서관 글씨여행



글씨여행은 무지개 작은도서관의 캘리그래피 동아리로 50대 주부들이 모인 동아리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만나 즐거운 캘리그래피를 배우며 행복한 글씨 여행을 떠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숨씨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 중입니다.

50대 주부 12명이 캘리수목화 지도사 선생님과 함께 멋진 캘리그래피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회원들 대부분이 50대로 자녀들이 출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공백에 허전함과 공허함을 느끼던 회원들은 글씨 여행을 만나고 지루한 일상에 큰 즐거움을 찾았다고 많이들 말씀해주십니다.

도서관 곳곳 인테리어도 회원들의 캘리그래피가 활용됐습니다. 쉼 없이 살아온 일상에 잠깐의 쉼표를 찍어주는 동아리 활동은 회원들에게 또 다른 꿈을 꾸게 했습니다. 회원 중 몇 명은 동아리 활동에서 배운 캘리그래피에 큰 흥미를 느껴 실제 캘리그래피 지도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내는 수요일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회원들! 우리 글씨여행은 2020 목포시 생활동아리 한마당에도 참여해 동아리를 널리 알리며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 큰 이야기를 써 내려갈테니 지켜봐 주세요.

## 담빛길 작은도서관 담빛라디오스타



담빛라디오스타는 대나무의 고장 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마을 객사리에 자리 잡은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생태도시 조성사업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민 라디오 방송이 계기가 되어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약 2시간의 방송을 위해 담빛길 작은도서관에 모여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작성합니다. 방송에 참여했던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방송을 직접 준비하게 되어 미디어 교육과 방송 진행 준비 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평 남짓한 스튜디오에서 다양한 동네 소식을 담은 유튜브 방송으로 청취자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동아리 회원들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소방관, 지방공무원, 펜션 운영자, 여행작가, 학생, 선생님, 예술가, 동네 이장님까지, 회원들 덕분에 방송 콘텐츠는 언제나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는 회원들이 뜻을 모아 담양미디어협회를 결성해 담빛라디오스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객사리에 사는 이야기를 가득 담은 내용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며 정다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봉사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은 방송에 직접 관여하고 준비하고 관리까지 해야 하니 어깨가 무겁게 느껴진답니다. 비록 실수도 있고 서투른 진행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시골의 조그마한 동네에서 즐거운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을 제공한다는 것에 뿌듯합니다.



## 작은도서관에서 찾은 인생책

2019년 4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에서 찾은 나의 인생책' 이벤트에서 회원들이 추천한 책을 소개합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회원들이 추천한 자신의 인생책과 그 이유를 살펴보고 뜻깊은 독서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p>그림책에 마음을 묻다(그림책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 최혜진 저 북라이프 2017.11.15. / 김윤정 회원</p> <p>“누군가의 한마디 말의 위로보다도 더 마음에 와닿고 그림책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오래가는 책입니다. 역명의 고민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이야기들이라 더 공감되고 약방의 약사처럼 그림책 처방을 해주는 저자의 답변은 효력이 아주 좋습니다.”</p>
	<p>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저 문학동네 2016.10.10. / 박효정 회원</p> <p>“지하철은 사람들의 인생사에 가리지 않고 말을 걸어주고, 말을 들어줍니다. 이 그림책이 저한테도 말을 걸어주더군요. 너는 잘 지내냐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생각 없이 지하철에서 보냈던 시간이 참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p>
	<p>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소설가) 저 최정수(번역가) 역 문학동네 2001.12.01. / 정다슬 회원</p> <p>“주인공이 용기 있는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장기여행이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서 꼭 한 번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입니다.”</p>
	<p>언어의 온도 이기주(작가) 저 말글터 2016.08.19. / 서미경 회원</p> <p>“쉽게 생각하고 던지는 나의 언어의 온도가 웃음 속에 행복을 느끼게 하고 슬픔을 담기도 하며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지, 앞으로 나는 몇 도의 온도로 말할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p>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부터 이용자까지 모두 이용 가능한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상품도 받아주세요.

	<p>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작가) 저 갤리온 2017.02.03. / 강은주 회원</p> <p>“쓸모없는 인간이 된다는 것에 고민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었는가 등 나에게 무수히 많은 질문을 주는 책입니다.”</p>
	<p>나는 계속 걷기로 했다 거칠부 저 궁리 2018.03.23. / 최영미 회원</p> <p>“이유가 있어서, 또는 무심히 내뱉게 되는 그 걸음이 아무 의미도 없는 행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걷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p>
	<p>마법의 순간 파울로 코엘료(소설가) 글 황중환(만화가) 그림 김미나 역 자음과모음 2013.05.09. / 한유림 회원</p> <p>“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중한 순간을 만드는 것이 나의 마음의 의지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읽을수록 그 마법의 순간들을 곱씹어보게 해줍니다.”</p>
	<p>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조선미(대학교수) 저 쌤앤파커스 2013.05.24. / 백정옥 회원</p> <p>“아이들의 마음이 강해지는 여러 요소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위기에서 스스로 힘으로 일어나도록 부모가 어떤 점을 강조하며 양육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책입니다.”</p>

작은도서관 운영의 '감'을 잡아드립니다!

### 작은도서관 정보가 가득한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설립부터 운영까지 '감'이 전혀 잡히지 않는다면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의 모든 노하우를 모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는 전국 약 7,000여 개의 작은도서관 검색, 주요 공모사업 및 행사, 작은도서관계 크고 작은 이슈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홍보, 작은도서관 운영자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형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추천 도서, 프로그램 정보, 법령 등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과 답변 코너를 이용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www.smalllibrary.org](http://www.smalllibrary.org))를 참고하세요.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좋은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 지방 등 문화소의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개설하고 누구나 좋은 책을 읽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기여하고자 1987년 설립해 지금까지 전국 340여 개의 도서관을 조성하고 다양한 국민독서진흥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학교마을도서관 개설

농어촌 · 산간벽지 · 섬마을에서 유일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은 학교도서관입니다. 학교도서관을 개방해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개설 · 운영을 도와줍니다. 1991년부터 현재(2019)까지 전국에 260개소를 개설했습니다.

#### 작은도서관 조성

국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독서 및 문화공간을 조성, 지식정보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곳곳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2019)까지 KB국민은행 후원으로 84개관을 개설했습니다.

#### 책 읽는 버스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해 서가와 영상 및 음향시설을 설치한 도서관버스입니다. 도서관이 없는 농산어촌 마을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현장 등을 방문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강남구립도서관 위탁운영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강남구립도서관 16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역사회 복합문화 공간의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 운영합니다.

####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 운영 · 실태조사

2015년부터 작은도서관 통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를 파악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언론 공동캠페인

2008년부터 동아일보 · 강원일보 · MBC · 한국일보 등 다수의 언론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2019 작은도서관 이야기

발행일 2020. 7.

취재, 글 배현정

발행인 김수연

발행처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주소 서울 강남구 학동로 169

전화 02-515-1178

팩스 02-515-1156

이메일 [slibrary@naver.com](mailto:slibrary@naver.com)

홈페이지 [www. smalllibrary.or.kr](http://www.smalllibrary.or.kr)

ISBN 979-11-966805-1-0





2019  
작은도서관  
이야기



9 791196 680510  
ISBN 979-11-966805-1-0